

3 2025 VOL. 345

www.innekorean.or.id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1991-2025

 PT. BOSUNG INONESIA

34년의 경험으로
고객의 미래를 포장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BE
THE FIRST
MOVER**



KMK GROUP

월간 한인뉴스 3 2025

한인뉴스 후원사로 초대합니다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발행인 김종현 배상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발행처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김종현

편집인 양태화

논설위원 신성철

편집장 홍석영

편집위원 최인실, 이영미, 조은아,
송기섭, 노병진, 송호진, 고광희

디자이너 Diki Satria Nugraha

인쇄 알림인도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표지 사진 : 작가 양진영

Sawarna Coral Coast Beurem 해변

이곳은 3번째 출사지만 한 출사지에서 40장을 넘는 사진을 보정 하기는 처음인것 같다.

똑같은 장소지만 파도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의 변화에 나도 모르게 많은 사진을 담은 것 같다.

작품 여부는 바람이 불어 파도가 바위를 넘어 오는
냐에 따라 사진이 되기도 안되기도 한다.

Sawarna는 두개의 해변이 있다. 하나는 Tanjung layar
또 하나는 Coral Coast Beurem이다. 해변은 보고르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으로 내가 사는 쥘레곤에서 거기까지는 160km
이며 버스로 약6시간 걸린다. 교통편도 왕복 모두 오전만 있고 오후
버스편은 없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만 타고 있었는데 만보게는
차의 흔들림 때문에 13,000보가 찍혀있었다.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글로벌 시대, 언어도 급변한다:

판교 사투리와 바하사 작술

8

2025년도 이사회 정기총회

10

[김재훈의 '세무 TALK']

공급가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가세 규정
(PMK11/2025)

11

재인니한인회, 각 단체별 상견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12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contents

2025. 3. 통권 345호

18

[여기가 맛집!] Bouchon
〈황지영〉

21

[디카시 풍경] 시들어 간다는 것
〈김동환〉

22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9]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6

[서상영의 한방칼럼 23]
생활 한의학 6 동양전통의
장생법

31

[자카르타의 아침]
골프 스윙을 잘하는 방법-백스윙
〈손상현〉

34

[행복에세이] 비밀의 배후
〈김준규〉

36

[조연숙 칼럼]
프라보워 정부의 식량자립 정책과
지구촌 식량위기

39

Hyaang the Yoga 6 〈Michelle〉

44

마나도에 가서 마음의 고향을 얻다
〈이효연〉

48

마지막 희망 〈Wilujeng Eraningtyas〉

51

[시간안내]
인도네시아어 법률 용어 사전

52

[반려동물, 랜선집사]
길에서 만난 춘향이 〈김미연, 김종빈〉

54

인도네시아 대학에 〈오징어 게임〉
등장 〈Wilujeng Eraningtyas〉

55

땅그랑 세종학당 이야기
〈윤지영〉

56

김종헌 한인회장, K-Move 통해
인니 취업 지원 강화

58

최경희박사의 ‘지카르타인들의
삶과 가치관’ 강의 열어
〈한인니문화연구원〉

56

2025 이달의 시사상식

55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월간 국가유산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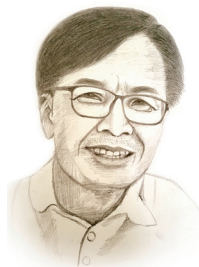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3)
중재 (2) 〈이승민〉

68

생활정보

글로벌 시대, 언어도 급변한다: 판교 사투리와 바하사 작슬



논설위원 신성철

초연결 글로벌 사회는 초고속으로 변화하고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언어조차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특정 지역과 산업, 세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문화적 도구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든지 인도네시아 사람이든지 현대인들은 말하는 도중에 이중 언어 또는 다중언어를 구사하기도 한다. 이를 전문용어로 ‘코드 스위칭(code switching)’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서울 근교의 판교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서 각각 탄생한 ‘판교 사투리’와 ‘바하사 작슬’(Bahasa Jaksel)이 이 같은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판교 사투리는 IT업계가 집중되어 있는 판교 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우리말과 영어의 혼용체 말투를 지칭하는 말이며, 바하사 작슬은 Bahasa Jakarta Selatan의 준말로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고학력의 젊은 층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판교 사투리, IT와 비즈니스가 만든 한영혼용체

판교 지역에는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판교 사투리’는 오랜 전통의 방언이 아니라,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탄생한 언어다. 판교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식 표준어를 사용하지만, 빠른 회의와 프레젠테이션 같은 상황에서는 말투와 억양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다. 특히, ‘올라운드’, ‘이슈’, ‘피봇’, ‘스케일업’ 같은 영어식 용어들이 직설적이고 간결한 표현과 결합되어 핵심 메시지를 더욱 빠르게 전달한다. 때로는 이러한 언어 사용이 유머러스하게 풍자되기도 하는데, 이는 판교만의 독특한 업무 문화와 젊은 감각을 반영한다.

판교 사투리는 한국어 어순에 중간중간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데일리 스크럼(daily scrum) 갑시다” (일일 업무회의에 갑시다), “목표와 실행 방안이 어느 정도 얼라인(aligned) 된 거 같네요” (목표와 실행 방향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 “가급적 아삽(ASAP)하게 해 주세요” (가급적 빨리 해 주세요) 등으로 표현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패션잡지 보그(Vogue)가 많이 사용해 붙여진 보그체와 판교 사투리는 다소 차이가 있다. 과학계 외래어를 섞어 쓰는 사람의 말투를 희화화한 보그체는 외국어를 혼용해 멋들어져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판교 사투리는 관련 업계 사람들 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바하사 작슬, 도시와 글로벌 문화가 만든 방언

2010년대 중반부터 자카르타 남부에 거주하는 주민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섞어서 쓰기 시작하면서 바하사 작슬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통 인도네시아어에 도시적 감각과 글로벌 트렌드가 더해진 바하사 작슬이 사용되는 자카르타 남부 지역은 IT, 금융, 패션 등 다양한 신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국제적인 문화와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된다. 그 결과, 영어 단어나 신조어, 속어가 인도네시아어에 섞여 사용된다. 이 같은 변화는 소셜 미디어(SNS)와 인터넷의 영향 아래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친근하고 캐주얼한 대화 스타일을 만들어낸다. 바하사 작슬은 단순한 언어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도시 젊은 층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과 정체성을 상징한다.

인도네시아어와 섞어서 쓰는 대표적인 영어 단어나 문구는 Normally(보통 때는), On The Way(가는 중), Hectic(엄청 바쁜), That's why(그게 이유야), literally(말 그대로), Honestly(솔직히) 등이 있다. 흔히 사용하는 구어체 문장의 예를 들면, “Gue lagi on the way ke kantor, traffic-nya hectic banget!” (나 출근하는 길인데, 차가 엄청 막혀!) “Honestly, tadi malam makanannya enak banget, literally the best!” (솔직히, 어제 저녁 진짜 맛있었어)

자카르타 남부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미셸 르즈끼(22)는 지난 2022년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친구들이 대부분 자카르타 남부에 살고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며 “직장과 소셜미디어에서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섞어서 쓴다”고 말했다. 언어학자 나디아 이자뚜니시아 씨는 “이러한 언어 혼용 현상은 글로벌화의 가속화로 자카르타 남부 지역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일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영어로 말하면서 스스로를 상류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두 언어, 하나의 시대를 말하다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간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고 발전한다. 판교 사투리와 바하사 작슬은 비록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시작되었지만, 공통된 흐름을 보여준다. 글로벌 문화의 영향 아래 두 지역 모두 글로벌 언어인 영어를 각 산업과 세대의 요구에 맞게 수용해 일상 언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시사한다.

결국, 판교 사투리와 바하사 작슬은 단순한 신조어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언어가 어떻게 적응하고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디지털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언어 혼용 현상은 더욱 확산될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언어 문화가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끝)

2025년도 이사회 정기총회



재인도네시아한인회(회장 김중헌)는 2월 13일(목), 셰라톤 호텔(Sheraton Grand Jakarta Gandaria City Hotel)에서 한인회 명예회장, 명예고문,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제적임원 153명 중 116명(위임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중헌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회장인사, 2024년 한인회 주요활동과 결산 보고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개정 순으로 진행했다.

김중헌 회장은 5개의 위원회,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장학위원회, CSR 위원회, 중재위원회, 플랫폼 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인사회에 실질적인 봉사과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일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또한 수석부회장이 각 분과의 장이 되고 임원들이 소속된 4개 분과를 통해 활동함으로써 발전적이고 활성화된 한인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김중헌 회장과 위촉장을 받은 박재한 명예회장

이 자리에서 한인회 개인회원은 가구당 연회비 Rp. 300,000 에서 Rp. 500,000 으로 인상과 명예고문, 자문위원의 회비인상, 회비 변동과 각종 한인회 비용의 고정환율적용한 루피아 책정 등을 통과시켰다.



왼쪽부터 이정호, 양태화 수석부회장,
김종현 회장과 김종희, 이지완 수석부회장

특히 한인회는 한인회관 숙원사업인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양영연 명예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신기엽 명예회장, 양영연 명예회장, 박재한 명예회장은 한인회 세대가 바뀌는 느낌이 들지만 다양한 세대 임원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에 뒷받침하며 화합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인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총회가 마무리됐다.





공급가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가세 규정 (PMK 11 /2025)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지난호에 부가세 인상 시행령으로 PMK 131 /2024 호를 기고하였는데, 2025년 2월 4일 PMK 11 /2025호 공표되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

공급가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으로 Freight Forwarding, 택배서비스, 여행서비스업 등 공급가액이 $10\% \times 12\% = 1.2\%$ 적용되는 항목은 $10\% \times (11/12) \times 12\% = 1.1\%$ 적용되며, 자가건설활동에 대한 부가세 PPN KMS 도 $20\% \times 12\% = 2.4\%$ 에서 $20\% \times (11/12) \times 12\% = 2.2\%$ 로 변경되었고, 상기 시행령은 2월 4일 공표되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1월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야 한다.

특정소득에 대한 정부 부담 소득세 시행령
(PMK 10 /2025)

지난 2월 4일 재무부 장관령 PMK 10/2025를 시행하였다.

특정산업분야에 월급여가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세 공제 기한은 2025년 1월 과세분부터 2025년 12월 과세분까지로 한다. (2조 3항)
2. 특정산업분야에 한하여 적용 (3조)
 - 신발, 섬유 및 의류, 가구, 가죽 및 가죽제품 산업
 - 별지 A 에 명시된 KLU 를 갖춘 업체
3. 특정직원 : 정규직 또는 계약직 (4조)
 - 월급직 IDR 10,000,000 / 월 초과할 수 없다.
 - 일급직 IDR 500,000 / 일 또는 10,000,000/ 월 초과할 수 없다.
 - KTP/NPWP 가 있어야 하고, 상기금액은 기본급 + 고정수당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단체별 상견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7대 한인회의 분과별 구성을 정비하고 주요 한인 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2월 4일, 아세안대표부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한인사회와 인도네시아의 발전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2월 18일에 각 한인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인회 김종헌회장은 한인회의 새로운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인회는 한인사회가 화합하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는 힘찬 첫걸음을 내딛으며, 3월 4일에는 각 기관장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주아세안대표부와의 만남 참석자] - 사진 상단
이장근 대사, 박윤주 공사, 김휘강 상무관, 권순지 노무관, 김현주 서기관, 강진모 행안관, 이영직 금융센터장, 안순현 재경관, 양중호 국토관, 김종헌 회장, 김종희 수석부회장, 이정호 수석부회장, 이지완 수석부회장, 임성필 사무총장, 최인실 사무국장

[한인단체장과의 만남 참석자] - 사진 하단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문예총) 회장/한국문인협

회 인니지부 김준규 회장, 재인니한인청년회 이승수 회장,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KOCHAM) 이강현 회장, 재인니대한체육회 김태화 회장, 월드옥타자카르타지회(OKTA) 서준형 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남부협의회 이세호 회장, 재인니 한국신발협의회(KOFA) 이종윤 회장, 재인도네시아 봉제협회(KOGA) 이규백 수석부회장, 재인도네시아 완구협의회(APMI) 강선학 회장,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의회(AKRI) 강진호 회장, 한인 중소벤처기업협의회(KOSA) 장윤하 회장,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KOWIN) 허영순 회장,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 협의회(AKCI) 황의상 회장, 금융협의회 이우열 회장, 에너지자원협의회 김신형 회장, 산림바이오에너지협의회 김보균 간사, 지상사협의회 윤선우 회장, 의료기기협의회 이승준 회장, 모발협의회 김영을 회장, 한인문예총 김혜정 수석부회장, 한인언론협의회 최석일 간사, 대사관 강원준 총영사, 류완수 영사 김종헌 회장, 김종희 수석부회장, 양태화 수석부회장, 이정호 수석부회장, 이지완 수석부회장, 임성필 사무총장, 최인실 사무국장



2025 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경제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여행사협회 “예산 삭감에 관광산업 타격”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모든 부처와 기관에 시행하기로 한 긴축 재정 조치가 관광 홍보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인도네시아여행사협회(Asita)가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1,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 방문객 수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90만 명으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협회는 예산 삭감이 인도네시아의 관광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하면서, 아세안(ASEAN)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이어 정부의 강도 높은 예산 삭감 조치가 관광부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부디안토 아르디안샤 협회 사무총장은 예산 축소가 홍보 활동을 제한하고, 태국과 말레이시아와 같은 주변국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는 대폭 증가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모순이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광부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삭감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2024년 예산 기준으로, 정부는 관광·창조경제 부에 1조7,0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3조4,000억 루피아(약 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2024년 10월 취임한 이후, 관광·창조경제 부문을 두 개의 독립적인 부처로 분리하면서 관광부 예산은 1조4,000억 루피아(약 9,000만 달러)로 더욱 줄어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 같은 아세안 이웃 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막대한 관광 홍보 예산과 넓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 반면, 인도네시아가 홍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024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 기준으로 태국이 2,800만 명으로 ASEAN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말레이시아(1,700만명), 인도네시아(1,390만명), 싱가포르(1,360만명), 베트남(1,260만명), 필리핀(540만명) 순이다.

공공사업부, 건축 재정 탕 대부분 인프라 사업 중단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예산 건축재정정책에 따라,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사업부가 국내 도로 총 4만7천km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등 대부분 인프라 사업을 취소한다고 지난 2월 12일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최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핵심 국정과제인 학교 무상급식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에서 총 306조 루피아(약 187억 달러)를 삭감하는 건축재정 조치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정부는 학교 무상급식 및 국민보건 등 복지 우선 정책에 따라 2025년 국가예산에서 공공사업부의 예산 81.38조 루피아(약 50억 달러)를 삭감했고, 이 중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에 배정된 예산은

24.83조 루피아(약 15억 달러)가 삭감됐다.

이에 따라, 2025년 공공사업부의 총 운영 예산은 대폭 줄어든 29.57조 루피아(약 18억 달러)로 조정되었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이번 예산 삭감이 건설 노동자 2만4,600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분간 신규 교량 건설이나 기존 교량 보수 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예산 감축은 이미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수년간 진행된 프로젝트는 취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디 장관은 예산 감축에 따라 급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출장, 세미나, 홍보 프로그램, 신규 장비 구매 등은 취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리 몰야니 “건축재정정책, 경제 성장에 영향 없을 것”

8% 경제성장 목표... 지속적인 조세제도 개혁 시행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건축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2월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투자 포럼’ (Mandiri Investment Forum) 기조 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기업인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UAE), 호주 등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스리 몰야니 장관은 이번 건축재정 조치는 2025년 제1호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국가예산(APBN)과 지방예산(APBD)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장관은 “현재 각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자금 요청의 이유, 절차, 규모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침은 정부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국정과제에는 영양가 있는 무상 급식 제공, 식량 및 에너지 자급자족 강화, 의료 시스템 개선이 포함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통령령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국가예산은 총 306.69조 루피아(약 189억 달러)가 감축됐다. 이는 각 부처 및 정부 기관 예산에서 256.1조 루피아,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금에서 50.59조 루피아가 삭감된다.

그러나 스리 몰야니 장관은 이러한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정부-민간 파트너십(PPP) 확대 및 국영기업 강화 등 다양한 혁신 전략을 통해 경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어 “프라보워 대통령은 8% 경제 성장이라는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특히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신도시 누산타라 건설에 40조 루피아 쏟아부어

2025년 공공사업부 예산 대폭 삭감... 신수도 프로젝트 ‘지지부진’ 전망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2024년 한 해 동안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 건설에 40조 루피아가량을 쏟아부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임기 중인 지난해 8월 17일에 독립기념일에 맞춰 신수도 이전을 계획했으나, 국내외 투자 부진과 공사 기간 지연 등 문제에 직면하면서 무산됐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작년 한 해 동안 누산타라 건설에 40조2,900억 루피아(약 3조 5천억원)가 투입되었다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획된 공사의 87.9%가 완료되었다고 지난 6일 현지 언론에 밝혔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도로·교량 건설로 18조 3,200억 루피아가 투입됐다. 또한, 정부 청사, 대통령궁, 상하수처리시설, 배수관 네트워크, 폐수관리시설, 통합 매립지 건설에는 12조 900억 루피아가 쓰였다.

주거시설 건설에는 8조4,300억 루피아가 지출되었으며, 여기에는 근로자 숙소, 인도네시아축구협회 선수촌, 공무원·보안 요원을 위한 아파트, 기타 주거 단지 건설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홍수 예방 및 하천 보전 시설 건설에 1조4,500억 루피아가 사용되었다.

신수도 누산타라 이전 계획은 조코위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으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후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도 신수도 메가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2028년까지 자신의 집무실을 누산타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프라보워 정부는 핵심 국정 과제인 무상급식을 우선 시행하면서 다른 지출은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9년까지 누산타라 개발에 48조 8,000억 루피아를 배정하고 입법부 및 사법부 청사 건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작년 10월 20일 취임 이후, 프라보워 대통령은 아직 누산타라 건설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으며, 이어지는 건설 공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5년 국가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 7천억 루피아 규모의 재정 지출을 감축함에 따라 계획된 각종 사업이 취소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사업부 예산의 80%가 삭감됨에 따라 정부 인프라 투자가 사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수도 인프라 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인도네시아에 저렴한 석유 수출 추진

러시아가 최근 브릭스(BRICS) 신입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와 석유 판매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다 저렴한 석유 공급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러시아산 석유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된 이후 유럽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아왔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 유가 기준보다 할인된 가격에 원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1월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로 불리는 브릭스에 가입한 직후,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산 저가 원유 구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경제자문회의(DEN) 루훗 뽀자히탄 위원장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며,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왜 안 되겠는가?” 라고 화답했다. 앞서 세르게이 톨체노프(Sergei Tolchenov) 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월 24일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면서도,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식적인 요청을 하지는 않았으며, 바흐릴 장관이 비

공식적으로 회담을 제안한 상태” 라며, 석유 거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사는 이어 “하지만 석유 거래 협상은 일반적으로 기업 간 거래(B2B)로 이루어지며, 공식 발표 없이 진행될 수도 있다. 러시아에는 로스네프트(Rosneft)와 가즈프롬 네프트(Gazprom Neft) 등 석유·가스 분야의 대형 기업들이 있다” 고 말했다.

최근 스웨덴을 포함한 일부 EU 국가들은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선을 60달러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의 원유 수익이 전쟁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국내 원유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국내 원유 생산량은 하루 70만~80만 배럴 수준으로, 국가 전체 수요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주로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의 전체 석유 및 가스 수입액은 363억 달러로, 전년도 359억 달러에서 증가했다.

인니 산업단지협회 “시민단체, 갈취로 막대한 손실”

인도네시아 전국 산업단지 내에서 활동하는 과격 시민단체(Ormas)가 기업을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통한 갈취 행위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인도네시아산업단지협회(HKI)가 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업을 상대로 갈취와 편취 행위로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관리회사의 손실 금액이 수 조 루피아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산니 이스칸다르 HKI 회장은 지난 2월 6일 열

린 ‘산업단지 최적화’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단순히 기업이 철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투자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 손실 규모는 수백 조 루피아에 이를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회장은 이어 “이들은 공장 운영과 관련된 물류, 급식, 자재 공급 등에 개입하고 자재 조달 과정이나 공장 확장 계획을 통제하려 한다. 이로 인해,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원자재와 완제품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고 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처음에는 건전한 취지로 설립되었지만, 현장의 모든 기업의 토지 분쟁 개입,

보호비 요구, 기업에 고용 압박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니 회장은 몇몇 투자자들이 직접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이들의 갈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도 밝혔다.

산니 회장은 “이러한 갈취 행위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서부자바주의 브까시와 까라왕, 동부자바주의 일부 산업단지, 리아우제도주의 바탐 지역이다”라며 “그들은 군복과 같은 주홍·검정색 위장단체복을 입고 있는데, 경찰이 아니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KPK) 조사관들은 지난 2월 4일 자카르타 남부의 자가까르사에 위치한 과격한 시민단체 ‘빠무다 뽀짜실라(Pemuda Pancasila, PP)’ 단체장 잡또 수르요수마르노의 사택을 압수수색했다.

정치폭력조직으로 알려진 빠무다 뽀짜실라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극우 단체 중 하나로, 이번 압수수색은 전(前) 꾸따이 까르파느가라 군수 리따 위다사리의 부패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정치, 사회〉

프라보워 대통령, 2029년 차기 대선 출마 수락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자당인 그린드라당이 요청한 차기 2029년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지난 2월 15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집권당인 그린드라당의 아흐맛 무자니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서부자바주 보고르에 있는 프라보워 자택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린드라당 간부와 당원들이 차기 대선 후보로 프라보워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는 “인살라(신의 뜻이라면)”라고 답하며, 먼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집권 연정 내 주요 인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3선이 불가능하지만, 그의

장남이자 현 부통령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는 2029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국민각성당(PKB) 대표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현재의 연정을 영구적으로 유지하자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일한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당간부 사이드 압둘라는 그린드라당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여당 연합인 전진인도네시아연합(KIM)은 각 정당의 자율적 결정이라며 논평을 하지 않았다.

PDIP는 오는 4월 전당대회에서 새 총재를 선출하고 프라보워 행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후보 등록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소규모 정당도 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공무원 주 2일 원격근무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주 2일 원격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월 16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국가공무원청(BPN) 주단 아립 청장은 “공무

원을 대상으로 주 5일 근무일 가운데 주 2일 원격근무를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격근무 시행 후 매달 업무성적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마련 중인 당국은 원격 근무를 ‘WFA(Work From Anywhere)’ , 사무실근무를 ‘WFO(Work From Office)’ 라고 부른다.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무상급식을 지난달부터 시행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국가예산 지출 가운데 약 300조 루피아(184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긴축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무원 원격근무제도 예산 절감의 일환이다. 또한 대통령령에는 공무원의 불필요한 출장과

행사 일정을 취소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원격근무 정책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국영기업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이 주 3일로 줄어들며, 디지털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자택이나 임의의 장소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두디 뿌르와간디 교통부 장관도 오는 3월 말부터 시작되는 이돌피트리(르바란) 연휴를 앞두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으로 원격근무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정책이 르바란 연휴(Mudik) 기간을 앞두고 조기 귀성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용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 활용 검토”

현지 식자재 다양성 강조... 영양 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적 접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곤충(메뚜기, 사고 굼벡이=sago grub)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재료의 다양성을 고려한 대체 단백질 원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국가영양청(BGN) 책임자는 지역별 음식 문화와 자원을 고려해 급식 메뉴를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달걀이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지역에서는 무료 급식 메뉴에 계란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생선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가영양청 다단 한다야나 청장은 지난 1월 25일 CNN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곤충이 전통적으로 주된 단백질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지역 식문화에 맞는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 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곤충 단백질의 생산 비용이 적고 환경 부담이 적으며, 지속 가능한 식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료 급식 프로그램은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31개 주 65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당국은 오는 4월까지 300만 명, 8월까지 600만 명, 9월까지 1,500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 위생 문제와 식중독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정부는 위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71조 루피아(약 6.2조 원)가 투입되었으며, 추가로 100조 루피아(약 8.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 절감 및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을 위해 지역 내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저비용·고영양 단백질원을 찾고 있다.

곤충이 공식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 채택될지는 미정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Bouchon

황지영 (자카르타 거주) ●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3월이네요. 꿈꿨던 대지가 녹아내리고,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3월입니다. 자카르타에서는 계절감으로는 3월을 느낄 수 없지만 항상 3월은 뭔가 시작되는 새로운 설렘에 기분 좋아지는 달인 것 같습니다. 마음도 새로워지고 변화가 시작되는 이 달, 나만의 여유를 챙길 수 있는 분위기 좋은 맛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곳은 Bouchon 입니다. Senopati 대로변에 있어서 오다가다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작년 3월쯤에 오픈한 곳이라 아직도 꽤 인기가 많은 핫플입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꼭 예약을 하셔야 할 겁니다. Union그룹에서 오픈한 곳이라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꽤 Union 스러운데요. 바닥에 체커보드 타일과, 벽에 붙은 각종 빈티지 액자와 장식들 때문인지 고급스러운 프렌치 레스토랑 느낌보다는 조금 힙하고 트렌디한, 요즘 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성수동의 와인바 같은 느낌이 물씬했습니다. 그동안의 Union 그룹에서 낸 식당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둡고 우드를 많이 사용한 것이 비슷하지만, 약간 힙한 느낌의 색다른 스타일의 인테리어라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요리 소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요리로 Duck Rillettes (95,000 루피아 ++)로 시작해 보세요. Rillette를 아시나요? ‘리예뜨’ 라고 발음하는데요. 거위, 돼지, 연어, 토끼, 닭 등의 고기에 양념을 하고 지방과 함께 오랜 시간 저온 조리하여 부드럽게 갈아 만든 요리입니다. 허브, 향신료, 와인 등을 첨가하여 풍미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즉, 프랑스 전통 페이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프랑스 서부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만들어 먹어온 전통 음식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겨울철 식량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리예뜨’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리예뜨’는 바삭하게 구운 빵이나 크래커 위에 발라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파스타의 속 재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식당에서는 바삭한 바게트 세 조각과 함께 곁들여 나왔는데요. 오리, 돼지, 연어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오리로 선택했습니다. 오리 ‘리예뜨’가 아주 부드럽고 고기 잡내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짭조름하고 부드러운 오리 ‘리예뜨’를 바게트위에 퍼 발라 한입 하니, 입맛을 아주 더 돋우어서 메인 요리를 먹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애피타이저로 추천 드립니다.

두번째 요리 Brie and Fig Jam(145,000 ++)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르예뜨’ 처럼 애피타이저인데요. 짠 게 싫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달달한 애피타이저입니다. 바게트빵 세 조각과 그 위에 곁들일 ‘브리 치즈’와 무화과 잼이 나오는데요. ‘브리치즈’는 흰색 곰팡이가 곁을 덮고 있어 곁은 흰 가루가 묻은 것 같이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견과류와 과일 향이 풍부한 소젖으로 만든 치즈로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짭조름한 치즈와 무화과 잼이 상당히 잘 어울렸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모든 요리 통틀어 이 맛에 꽂혀서 집 갈 때 마트에 들러 ‘브리 치즈’와 무화과 잼을 사서 최근까지도 아침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이 애피타이저도 꼭 드셔보세요.

세 번째 요리로 Parisian Gnocchi(170,000 루피아 ++) 소개 드립니다. ‘ 뇨끼’ 입니다. ‘ 뇨끼’ 는 그동안 제가 다른 식당 소개할 때도 자주 소개 드렸는데요. 파스타의 일종으로 식감은 한국의 수제비와 유사하고 모양은 한국의 조랭이떡과 유사합니다. 감자 전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쫄득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고, 밀가루의 텁텁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좋아하실 겁니다. 사실 이 파마산 뇨끼는 몇 입 먹다 보니, 어디서 먹어본 맛이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23년 12월 호에서 소개 드렸던 ‘Pierre’ 라는 식당에서 먹었던 ‘Gnocchi Parisienne’ 와 맛 뿐만 아니라 비주얼 또한 유사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그룹의 식당이다 보니 메뉴가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요식업은 대부분 Union 그룹이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 높은 자본력으로 식당의 인테리어나 서비스적인 부분은 좋지만 다채로운 메뉴를 맛볼 수 없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덕꾸덕하고 고소한 파마산 치즈 뇨끼, 밥 잘 안 먹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조리 후 오븐에 30초쯤 더 데운 느낌이라 썰 윗부분 치즈들은 바삭 구워져 있어서 더욱 고소하고 풍미가 좋았습니다. 밀가루 소화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파스타 대신 뇨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요리로 Cordon Bleu(185,000 루피아 ++) 추천드립니다. ‘꼬르동 블뢰’ 고 발음하는데요. 얇은 햄을 치즈에 싸서 기름에 튀기거나 구운 고기 커틀릿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치즈 돈가스라 비슷한데요. 이 ‘꼬르동 블뢰’ 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얇은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돈가스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은 ‘꼬르동 블뢰’ 라는 프랑스의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학교에서 학생이 요리를 하던 중 개발한 요리라 이름이 ‘꼬르



동 불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 짭짤한 게 딱 안줏감이라 식사하시고 2차로 오셔서 이 요리를 즐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Duck confit (215,000 루피아++)입니다. '덕 콩피'인데요. 오리를 저온으로 가열되는 기름에 숙성시켜 만들어진 프랑스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원래는 오래전 프랑스에서 기름이 공기를 차단하는 것을 이용한 보존 음식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길게는 1년까지도 보관 가능했다고 하네요. 원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손을 담갔을 때 약간 뜨거울 정도의, 즉 고기 겉표면에 갈색 그을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온도의 기름에 생고기를 푹 담그고 보통 3시간~3일 익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조리하면 아주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이 식당에서는 그냥 구워낸 것 같았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웠기는 했습니다만 처음 맛보는 새로운 느낌의 고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언젠가 프랑스 여행을 간다면 잘하는 집에 가서 꼭 먹어보고 싶은 흥미로운 요리였습니다. 담백한 오리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드셔 보세요.

이 식당은 수제 프랑스 디저트로도 유명해서 3시부터 6시까지는 매일 새로운 스타일의 디저트의 애프터눈 티 이벤트가 있는데요.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시간에 방문하셔서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저는 지나갈 때마다 들러서 디저트를 사 오기도 하네요. 몇 개 추천해 드리자면, Nutella Truffle Sundae (90,000 루피아++) 누텔라와 트러플 아이스크림인데 이 조합이 생각보다 특이하고 맛있습니다. Paris Brest (90,000 루피아++) 모양은 베이글 같은데 안에 헤이즐넛 무스가 가득 차 있어 아주 큰 페레로로쉐 초콜릿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외에 크림 브뤼레, 휘낭시에, 타르트 등 여러 종류의 디저트가 있으니 취향대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설렘으로 가득 찬 3월입니다. 1,2월 동안 게으름 피우느라 미뤄뒀던 새로운 일, 계획이 있다면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보세요. 봄의 변화처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과 계획도 밝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4월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 정보 : Bouchon

음식 종류 : 양식

가격대 : Rp 300,000-500,000 /2인 기준

영업 시간 : 월~일 오전 11:00- 오후 10:00

주 소 : Jl. Senopati No.79, Selong,
Kebayoran Baru,
Jakarta 12110

※ Google 참고





시들어 간다는 것

절절하게 내려지는 꽃보라
오롯이 줄기를 거두는 국화근.
삶의 가을쯤 느꼈던가
무너지면서 퍼져가는 생의 그림자 아래
당신의 씨앗 여럿 뿌려져 있다는 것을.

글 : 김동환 이미지: 눈누난나희선



디포네고로 왕자와 지배전쟁

지난 호에 이어

“디포네고로를 잡지 못한다면 최소한 망꾸부미 왕자와 끼아이 모조라도 잡아오란 말이오! 수뇌부를 쳐부수지 않고는 저들을 와해시킬 수 없소!”

양측의 회합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드록 장군은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디포네고로군 수뇌부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와 망꾸부미 왕자, 끼아이 모조 등은 모두 설 새없이 움직이며 위치를 바꾸고 있었지만 네덜란드군은 그들 가족들의 소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 디포네고로의 아내들을 포함해 수뇌부의 여인들은 꼴루르(Kulur)라는 곳에서 디포네고로군의 엄중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은 망꾸부미 왕자가 언젠가부터 전선보다는 후방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꼴루르에 디포네고로군 수뇌부 가족들과 망꾸부미 왕자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디포네고로군 대부대들 여럿이 가까이에 포진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드록 장군으로서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이닥치지 않으면 저들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터였으니까요.

“가용한 병력을 모두 끌어모아 총공격을 가하시오!”

네덜란드군은 족자의 병력은 물론 망꾸부미가라안 봉국의 군대들과 인근 요새 수비대까지 모두 불러내 꼴루르를 포위해 들어갔습니다. 디포네고로의 아내와 아이들을 잡는다면 네덜란드는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터였습니다. 노련한 망꾸부미 왕자가 기민하게 병력을 운영하며 수비전을 펼쳤지만 압도적인 숫자와 화력을 견뎌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군이 맹공격을 펼치며 은신처에 접근하고 있을 때 디포네고로군 사령관 쉐롯 뿌라위라디르조(Sentot Prawiradirjo)의 부대가 홀연히 나타나 그 배후를 격파함으로써 간신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쉐롯 알리바사가 직접 움직일 만큼 수뇌부 가족들은 네덜란드군 못지 않게 디포네고로군에게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한편 그해 7월 족자 남쪽 방면 게게르 마을(Desa Geger)에서는 베이 왕자의 부대가 네덜란드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맨 앞에서 응전하던 그는 예기치 않은 적의 집중공격에 중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의 지휘권을 넘겨 받은 그 지역 영주 라덴 조요네고로(Raden Joyonegoro)는 베이 왕자를 긴급히 후송시킨 후 기를 쓰며 그 뒤를



디포네고로군 군사훈련장 <https://sunardian.blogspot.com>

막아서서 네덜란드 대군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베이 왕자는 디포네고로 본진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후 아직 성치 않은 몸으로 다시 전선에 나가게 됩니다.

“숙부님, 전선에 나가는 건 조금 더 몸을 추스린 후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삼촌들과 형제들을 잃었습니다. 숙부님까지 잃을까 두렵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가 직접 나서 그렇게 말하자 말에 올라타려던 베이 왕자는 조카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탄 전하, 그러니 제가 나서야죠. 그 많은 형제들과 조카들의 빈 자리를 나와 내 아들들이 채워야죠. 몸을 좀 더 추스리란 말을, 그전에 술탄 전하도 뿌리치고 전선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디포네고로가 가웁 전투에서 총상을 입었던 디포네고로 왕자를 대신해 임시로 디포네고로군 전체를 지휘했던 것도 베이 왕자였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디포네고로가 전선에 나서는 것을 극구 말렸던 것도 베이 왕자였고요. 하지만 디포네고로도 그때 그 만류를 듣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신의 가호가 나와 함께 함을 술탄 전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옥 같은 모든 전투에서 살아 돌아왔으니 이번에도 가장 험한 곳으로 가 잘 싸우고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며 떠난 곳은 보고원토 강과 빠로고 강 사이의 지역이었습니다. 스텔셀 요새 작전에서 네덜란드군이 섬멸지역으로 설정했던 바로 그곳이죠. 거기서도 베이 왕자는 요새들의 통신로를 유린하며 중형무진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영웅의 주변엔 늘 배신자가 있기 마련이죠. 꼬깅(Kokap) 지역에서 네덜란드군 대군에게 포위된 베이 왕자는 또 다른 기발한 작전으로 적진을 돌파하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휘하의 끼렉소 디위르요(Ki Rekso Diwiryo)라는 참모의 배신으로 그의 작전이 네덜란드군에게 사전에 노출되어 탈출로 길목을 지키던 적들에게 집중사격을 받았습니다. 베이 왕자는 두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베이 왕자란 별명으로 불렸던 그는 술탄 하명꾸부위노 2세의 30번째 아들로 칸쟁 빵에란 조요꾸수모(Kanjeng Pangeran Joyokusumo)란 정식 칭호를 가졌고 디포네고로 전쟁을 통틀어 가장 빛나는 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얼마 후 족자 외곽에서 여러 두면
궁들이 네덜란드군에 백기를 들었고 망꾸부미 왕
자의 부인도 네덜란드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 난 이제 더 이상 뭘 위해 싸워
야 할지 모르겠구나.”

뽕아시의 야전막사에서 디포네고로 왕자와 마주
앉은 망꾸부미 왕자는 술탄과 신하가 아닌 삼촌
과 조카로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이모기리의 묘
역에도 방문하지 못하는 불효를 저질렀는데 이제
가족들마저 족자 끄라톤에 잡혀갔으니 난 이제 반
쯤 죽은 시체나 다름없구나.”

“숙부님, 그럴수록 힘을 내셔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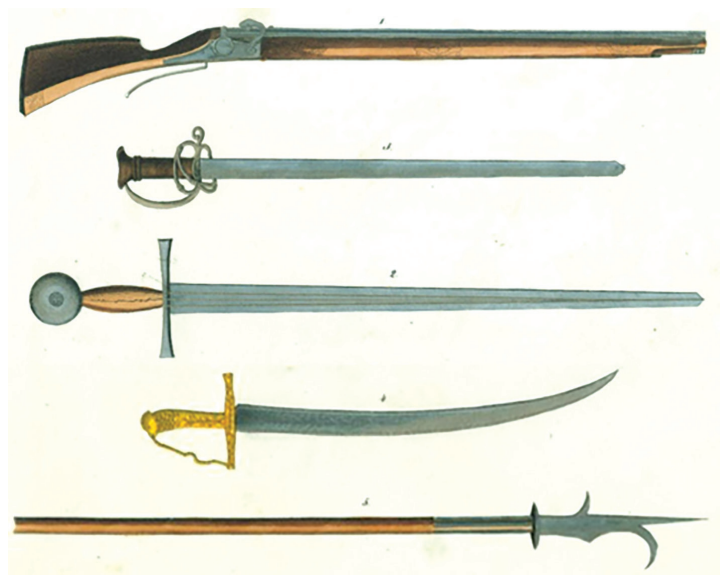
“내 가족들을 세랑 왕자가 잘 돌봐 주고 있다고
하는구나.”

망꾸부미 왕자는 서한 한 통을 디포네고로 왕자
앞에 내놓았습니다. 거기엔 족자 끄라톤의 봉인이
쳐져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군과 끄라톤은 모
든 가용한 경로를 통해 디포네고로군 지휘관들에
게 서한을 보내 회유하고 있었으니 적과의 내통이
라며 굳이 문제삼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디포네고
로 왕자 자신도 부대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들
을 통해 드록 장군의 서한을 받은 적도 있었으니
까요. 세랑 왕자가 네덜란드에 항복한 후 끄라톤
의 자리를 하나 얻어 등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그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세랑 왕자께서 숙부님 가족들을 신경써 주신다
면 더더욱 마음 놓으셔도 되지 않으십니까?”

“디포네고로 왕자, 날 보게, 내가 이제 얼마나 더
살 것 같은가?”

백발이 성성한 망꾸부미 왕자는 지난 1825년 뜨
갈레조에서 처음 합류할 때에 비해 훨씬 늙고 초



디포네고로 전쟁 당시 무기
<http://koleksitempodoeloe.blogspot.com>

체해져 있었습니다.

“난 아버님이 왜 그 수모를 견디면서 네덜란드인
들의 손을 빌어 빼당섬에서 족자까지 돌아오셨는
지 그 마음을 잘 알 것 같네.”

“네 숙부님, 저도 할아버님 마음 잘 압니다.”

“그분은 족자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으셨던 거야.”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
는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
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대화가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망꾸부미 왕자는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아버님과 같은 마음이야.”

“.....”

“내일 아침, 모두들 보는 앞에서 내 목을 베게.
신념을 잃은 배신자로서 말이야. 그 대신 내 시신
을 끄라톤으로 보내 내 가족들이 장사지내도록 해
주게.”

“숙부님....”

다음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망꾸부
미 왕자의 숙소 앞에는 그의 말과 소규모 부대가



끼아이 모조의 또 다른 초상
(<http://pustakamuhibbin.blogspot.com>)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서 나오는 망꾸부미 왕자를 그 부대의 지휘관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왕자님을 끄라톤까지 모시겠습니다.”

디포네고로는 망꾸부미 왕자를 그렇게 조용히 족자 끄라톤으로 보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그의 숙소에서 끝내 모습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망꾸부미 왕자는 한참 동안 디포네고로의 숙소를 응시한 후 말에 올랐습니다. 전쟁 내내 그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 동안 디포네고로 왕자의 곁을 지켰던 망꾸부미 왕자는 그렇게 네덜란드에 투항했습니다.

끄로야(Kroya)에서 소년장군 센뜻은 홀로 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수백 명의 네덜란드군을 생포하고 400정의 소총과 화포들을 노획하는 승전보를 보내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829년의 전황은 전반적으로 디포네고로군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라피 산기슭에서 끼아이 모조가 네덜란드군에게 사로잡힌 사건은 디포네고로군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1826년 하반기부터 디포네고로는 물론, 주요 지휘관들, 왕족, 귀족들과 의견충돌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디포네고로

의 군사 및 종교 지도자이자 정신적 지주였기 때문입니다.

디포네고로와 끼아이 모조의 불화는 1826년 10월 가웁 전투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디포네고로를 비롯한 지휘관 대부분이 망꾸느가라안 봉국을 침공해 들어감에 있어 전면전 방식을 주장했는데 끼아이 모조 만이 그동안 네덜란드군을 상대해 왔던 게릴라전 방식을 고집스럽게 요구해 기어이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한편 디포네고로 왕자는 가웁에 집결한 네덜란드 연합군에 가담해 있던 수라카르타 군대와와의 충돌을 원치 않았습니다. 수난 빠꾸부위노 6세가 어쩔 수 없는 입장임을 잘 알고 있었고 수난의 특별한 부탁도 비밀리에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때 빠꾸부위노 6세의 신임을 받았던 끼아이 모조는 수라카르타 군대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가웁 전투는 누구라 할 것 없는 피바다를 이루었고 디포네고로 왕자는 지나친 원칙론에 입각해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는 끼아이 모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당시 아직 20대 중반에 불과했던 끼아이 모조는 이슬람에 대한 깊은 학식에도 불구하고 치기어린 마음에 거듭된 승전으로 자신감이 쌓이면서 초심이 변질되어 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충돌은 1827년 8월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루췌크로(Sultan Erucokro)의 역할에 대해 협의하던 중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뿌라렘방 자야바야 예언서에 등장하는 공의의 여신 라투 아딜(Ratu Adil)은 남성의 경우 ‘에루췌크로’란 특별한 명칭으로 불린다고 되어 있었죠. 기왕에 자바 백성들이 디포네고로 왕자를 라투 아딜의 현신으로 여겼으므로 빨레레드의 대관식에서 받은 술탄의 칭호에도 헤루짜크라(Herucaktra - 에루췌크로와 같은 의미)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한방

지난 호에 이어

생활한의학 6

동양 전통의 장생법

인간은 육신을 타고 남으로써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을 갖게 됩니다. 육신은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맛을 느끼고, 냄새 맡고, 촉감이 있습니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으면 정신도 평온해 지고, 몸도 릴렉스되며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통증이라는 느낌은 기분을 다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며, 활동을 제한하게 만들고, 불편함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무병장수의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무병장수의 열쇠를 DNA에서 찾기도 하고, 세포나 신경전달물질, 또는 호르몬 등에서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의 불로장생초를 찾는 일화나, 도가에서 단전의 단련과 호흡법을 연구개발한 사례, 화타가 개발한 ‘오금희’ (五禽戏) - 다섯 가지 동물(호랑이, 사슴, 곰, 원숭이, 새)을 모방한 동작으로 구성된 기공을 통해 신체 활동력을 증진시키고, 체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심신의 균형을 맞추는 수련법-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생방법들을 통하여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무병장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양 전통의 장생을 위한 지침〉

아래의 방법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의 진수를 완전히 파악하면 불로장생을 논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질병을 피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회춘의 비법은 모두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선은 신체 자세를 단정하게 하고 두 눈을 감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좌선일 뿐, 진정한 좌선은 언제 어디서나,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내면에서부터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육근(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스스로 살피고, 칠정(희, 노, 우, 사, 비, 공, 경)으로 인해 내면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나 상황이 녹록치 않더라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상태를 일컫기도 하는데, 자족자이면 상락(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항상 즐겁다)이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즐겁습니다. 몸이 즐거우면 호르몬 대사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원활합니다.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그 밖의 인체 활동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항심의 방법은 내면을 고요하게 유지하고, 눈을 반쯤 감고, 내외 구별 없이 어떠한 욕망도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잡념이 들어 마음이 어지러우면 이를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평정심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는 건강한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장수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성은 마치 가야금을 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현의 긴장도가 적절할 때에 소리가 조화롭게 울립니다. 또한, 보검을 주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강철의 비율이 적절해야 검이 날카로워지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연성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는 운동, 식사, 일, 생각 등 모든 적절한 양이 있는 법이기에 너무 넘쳐도 부족해도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뉩니다. 사욕을 버리면 욕계(욕심)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세속적 경계를 잊으면 색계(유흥)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공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무색계(불안, 두려움)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계를 초월하면 번뇌가 생기지 않고, 사악한 것들이 멀리 사라지게 됩니다.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 온갖 유흥과 집착을 적절히 조절해야 삶이 평탄하며 건강에도 이롭다는 얘기입니다.

경은 도의 기초입니다. 마음을 한결같이 집중하고, 신은 건고하고 진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경신을 지키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길, “경신을 통해 천밀하게 믿어라”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부모로부터 받았음에 감사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크푸드, 술, 담배, 마약 등 몸에 이롭지 못한 중독성 있는 기호식품을 과다 섭취하고 자신의 건강은 뒷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시기, 질투와 남을 해치려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환자분들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지금 계획하신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나요?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건강보다 지금의 목표가 더 중요한가를 되묻는 질문입니다. 계획한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때문에 잠을 설치고, 식사를 거르고,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번잡하고 답답한 마음이 결국에는 노화를 촉진시키고, 병을 만들고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되찾기 힘든 것이 문제입니다.

단연은 세속적인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연결고리에서 얽매이게 되면, 마음이 동요되고 마음이 동요되면 맑은 정신을 낼 수가 없고, 정신이 맑지 못하면 육체 또한 탁한 기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단연이 꼭 사람과의 관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의 명예와 불명예, 얻고 잃음의 생각을 떨치지 못하면 탐욕의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은 잡음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잠시도 편안하지 않고 신체는 안정되지 않아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피해야 할 최대의 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덕행과 재능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지 마십시오. 또한, 생로병사의 모든 감정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살펴 나가다 보면 자연히 번잡함은 끊어질 것입니다. 장수한 선인들은 모두 이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수심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뜻합니다.

마음은 신체의 주인이며, 정신의 안식처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요동치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환상에 홀려 그것이 실체라고 착각하며, 오염된 상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매일 자신을 살피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마음과 도가 일치되어 몸과 마음은 자연스레 평온해집니다.

임상에서 환자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여 불면증, 소화불량, 두통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과 육체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곧 에너지이고 기혈순환의 핵심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병이 암으로 커지는 과정을 겪으며 후회하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관찰합니다. 큰 병마에 시달리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기보다, 선인들의 지혜를 배워 나간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자가 말하길, “평온함으로 지혜를 기른다”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생겨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평온함이 서로를 성장시키며, 이렇게 되면, 도와 덕이 본성으로부터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평온함과 지혜가 결합된 상태가 정경과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평온함에 안주할 수 있다면, 도가 완성되고 덕행이 완비됩니다. 이 방법들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장생의 비법을 완전히 파악하게 되며, 지상의 신선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고 시대의 사람들은 백 살까지 사는 것이 드물지 않았고, 그들의 수명은 길고 움직임도 약해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에 전해집니다. 허나 현대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50세가 되기도 전에 이미 늙어 보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하늘과 땅 사이의 기운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양생 방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상고 시대의 사람들은 음양의 법칙을 따르고, 양생의 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음식은 절제하고, 생활은 규칙적이며, 과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백세 이상까지 평온하게 살며, 이를 장수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복잡하고, 많은 유혹들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일상 음료로 삼고, 망상하며, 술에 취해 성 관계를 맺고, 지나치게 정기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방탕에 빠진 자들은 에너지를 충전할 줄 모르며, 정신이 혼탁하며,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일시적 쾌락만을 탐합니다.

이리하면 50세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촌사람들이 도시사람들보다 장수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촌사람들은 아침이면 일어나서 낮에 일하고, 해가 지면 돌아와 휴식하고 잠자고, 다시 해가 뜨면 일터로 나가는, 단조롭고 소박하지만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명예와 이익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속에서 의미를 찾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식생활이 불규칙 하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벗 삼아 살아가며, 내면의 세계는 가벼이 여기고, 외부 세계의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여, 온갖 유혹으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부귀영화의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되면 마음은 잠시도 평온하지 않고, 정신 또한 온전하지 못하여, 정기 소진이 촉진되어 수명이 단축됩니다.

루칭셴공은 말했습니다. “가정에 충분한 쉼감과 쌀이 있고, 걱정과 결핍이 없으며, 세금은 일찍 납부하고, 두려움과 모욕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아 이자의 부담이 없으며, 전당포에 가지 않고, 오직 맑은 차와 간단한 식사로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양생의 요책이며, 수명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다. 이를 실천하면 장생의 길을 열 수 있으며, 영약을 찾거나 금단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너의 몸을 지나치게 피로하게 하지 말고, 너의 정기를 낭비시키지 않게 하며, 너의 생각이 계속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하라. 생각을 줄여 신을 기르고, 욕망을 줄여 정을 기르며, 말을 줄여 기를 기르라. “

과거에는 장수의 길을 논의할 때, ‘**사, 검, 화, 정**’ 네 글자로 요약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애로우면 모든 생물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자애로운 기운은 천지의 조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검소함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소함은 단지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식생활의 검소함은 비 위장을 튼튼히 하고, 욕망의 검소함은 정신을 모으며, 말의 검소함은 기를 보하고, 사교의 검소함은 몸의 정화와 사람관계의 실수를 줄이고, 술과 성의 검소함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생각의 검소함은 번뇌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모든 일을 조금씩 절약하면 이익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화합은 길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군신이 화합하면 국가는 번영하고, 부자간의 화합은 가정을 평안하게 하며, 형제간의 화합은 서로 돕고, 부부간의 화합은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친구간의 화합은 서로를 지킵니다.

‘정’은 몸을 지나치게 피로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수지천은 “태산이 눈 앞에서 무너져도 담담할 수 있고, 사슴이 오른쪽에서 갑자기 일어나도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의 극치입니다.

《도덕경》 오천 글자의 요지가 바로 위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생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 검, 화, 정’ 네 글자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노자는 또 얘기했습니다. “수면과 식사는 양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는 과식을 하지 말고, 과식하면 비 위장을 해칩니다. 수면은 과도하게 하지 말고, 과도하게 하면 정기가 흩어집니다. 저는 200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과식을 하지 않았고, 장기간 잠을 잔 적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일로도 사람들은 쉽게 성급해지는데, 이는 모두 정기를 손상시킵니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이 지나치면 신체를 상하게 하며, 대화, 식사, 휴식을 적절히 유지할 때 신체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주의하지 않고, 걷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술과 성욕에 빠지는 것 모두 신체를 해칩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정도가 심해지면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걸었고, 시야를 멀리 두지 않았으며, 청각을 너무 예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지 않았고, 지치도록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 옷을 입었고, 더위가 오기 전에 옷을 벗었습니다.

극도로 배고플 때 음식을 먹지 않았고, 극도로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이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고, 부귀와 명예의 생각이 의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통증은 나 자신만의 느낌이며, 그 누구도 대신 느껴 줄 수 없습니다. 노화, 질병, 죽음은 나 자신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동양전통의 장수비법의 일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저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글로 엮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장수의 핵심은 “**평정심**”인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평정심을 향해 나아가는 수련의 과정이며, 목적이라는 생각을 해롭니다. 그렇다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위 글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식사 후 간단한 산책이나 적당한 운동과 신체활동, 긍정적인 마인드와 온전한 휴식(수면, 취미활동, 사교활동, 마사지 등)을 즐기는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번씩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급할수록 심호흡 한번하고, 여유를 찾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어 나간다면 생명을 좀먹는 일은 그 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 읽어보시며 머리와 가슴에 양분주시길 바랍니다.

韓方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골프 상식

골프 스윙을 잘하는 방법-백스윙

글: 손상현(‘자카르타의 아침’블로거)

어떻게 하면 골프 스윙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백스윙에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골프 스윙은 셋업자세에서 시작하지만 백스윙이 실질적으로 골프 스윙의 핵심 단계임을 주지해야 한다.

백스윙은 궤도, 속도, 높이, 아크 크기, 상체의 꼬임 정도, 무게 중심 이동, 왼 손목의 꺾임과 오른팔의 자세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요소들이 전체적인 스윙의 리듬, 비거리와 방향성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인 백스윙이 이루어져야 정확하고 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컨트롤할 수 있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비거리를 늘리고자 백스윙을 과도하게 크게 하며, 그 결과 오버스윙이 발생하기도 한다. 백스윙 탑에서의 왼손 손목의 뒤로 꺾임이나 오른팔꿈치를 드는 동작은 임팩트 시 클럽 페이스가 열리거나 아웃-인 궤도를 만들어 슬라이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동작은 레슨 프로에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거리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강하다.

라운드 중에 갑자기 샷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백스윙을 점검해 보자.





1. 백스윙 속도 체크

모든 프로 골퍼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골프 스윙의 리듬이다.

빠른 스윙 스피드도 리듬을 고려해야 비거리와 방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백스윙 속도와 다운스윙 속도 간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백스윙의 속도가 다운스윙의 속도보다 3배 정도 느리다. 이는 유연성을 유지하고 임팩트 이후 구간에서 스피드를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이다.

라운드 중에 OB, 해저드, 생크, 뒤땅 등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 빠른 백스윙이다. 샷 실수에 대한 후회, 잃어버린 공에 대한 미련, 동반자의 얄미운 시선 등으로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고,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긴장감이나 초조함으로 인해 백스윙 스피드가 너무 빨라지면 오히려 스윙 전반에 걸쳐 균형을 잃을 수 있다.

2. 백스윙의 높이 체크

스윙 아크를 크게 만들려다 보면 자연스레 오버 스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웨이 현상이나 부정확한 임팩트 타이밍이 발생하여 비거리와 방향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스윙의 높이는 그립을 잡은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어깨 높이 정도로 충분하며, 하프스윙 연습을 통해 간결한 백스윙을 익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어 프로들도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 짧고 간결한 백스윙을 구사하며, 이는 비거리, 방향성 모두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라운드 중에 비거리 욕심이 많은 동반자들을 보면 스탠스 너비가 넓고, 백스윙 속도가 빠르며, 오버 스윙을 하는 경향이 있다.



3. 백스윙의 궤도 체크

백스윙이 잘못되면 아웃-인 혹은 인-아웃 궤도가 형성되어 슬라이스 또는 훅이 발생할 수 있다. 백스윙을 할 때 지나치게 업라이트 하거나 플랫 한 경우, 팔뚝 혹은 팔목을 회전시켜 클럽이 테이크 어웨이 동작부터 몸 뒤로 가버리는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백스윙은 테이크 어웨이 동작부터 클럽이 몸 앞쪽에서 올라가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상체를 회전시키면 자연스럽게 백스윙 탑이 만들어진다.

클럽을 몸 뒤쪽으로 보냈다가 인-아웃 스윙을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이 동작은 오히려 아웃-인 궤도의 다운스윙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더 크다. 셋업자세에서 테이크 어웨이, 백스윙 탑으로 이어지는 빈 스윙 연습을 자주 하면 실전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라운드 중에 갑작스러운 샷 실수가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점검함으로써 보다 쉽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LPGA에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박인비 선수는 “비거리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스윙의 일관성과 편안함을 선택했더니 성적이 좋아졌다” 라고 했다.

올바른 백스윙을 위해 체크해야 할 추가 요소로는 백스윙을 시작할 때 약간의 반동을 타깃 방향으로 주면 훨씬 더 가벼운 백스윙을 할 수 있고, 오른쪽 무릎은 완전히 펴지 않는 상태에서 몸통 꼬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단단하게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백스윙 탑 단계에서 체중을 타깃 쪽으로 이동시키며 클럽 헤드가 탑에서 잠깐 멈추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 다운스윙을 더 잘할 수 있다.

비밀의 배후

김준규(한국문협 인니지부 회장)



이 시대에 비밀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비밀이란 뜻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다양성의 시대에 개인의 신상이 중요시되고 개인 정보가 잘못 유출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험악한 파도가 나의 경계로 넘어와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산다.

낮은 담장 너머 안마당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정감 어린 옛날의 주택구조를 살펴보면 이웃에 누가 살든지 제집 드나들듯 마실을 다니며 소통하는가 하면, 뒷집 김서방의 찬장에 숟가락이 몇 개 인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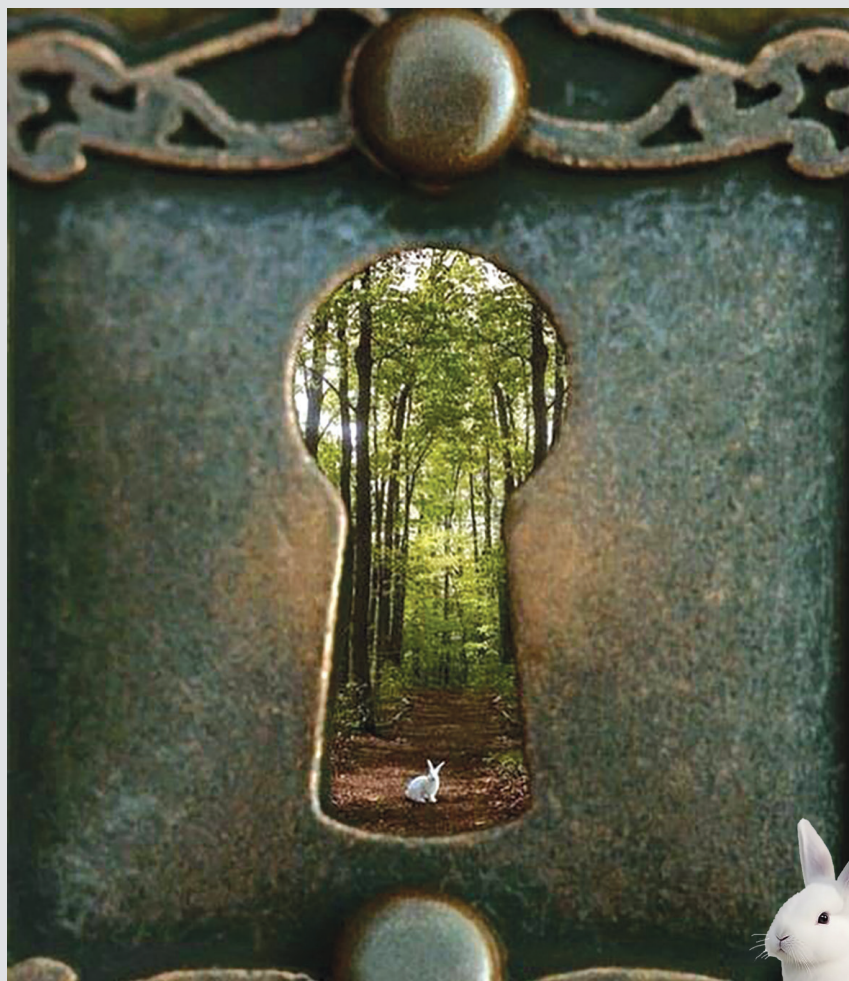
오늘날 아파트의 위층에 누가 이사 와서 사는지, 죽는지, 알고고도 하지 않고 자신을 누구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절벽의 이웃 관계는 선진국 문화가 가져다준 낯선 시대의 산물이다.

나만의 비밀은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누가 나를 엿보지 않는 가운데 자존심을 누리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내 비밀의 세계는 나의 아늑한 보금자리이며 타인으로부터 절대 침해 받을 수 없는 고유한 성역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고립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더욱 익숙해 있다.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와 다르거나 불편하면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부부 관계이거나 혈족 사이에도 예외 없이 발생하는 다툼의 원인이 된다.

나의 친구 A 씨는 어느 날, 지방의 경치 좋은 해변가로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집에 돌아온 후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금고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금고 속에는 현금과 금으로 된 패물, 각종 부동산 등기 서류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고 했다. 살아가면서 집안의 비밀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했다고 생각한 무쇠 텅어리 금고란 놈이 어느 날, 주인을 배반하고 훌쩍 떠나버린 것이다. 비밀이란 아무리 철저하게 단속하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장막을 쳐놓아도 언젠가는 나를 배반하고 돌아서서 흥기를 드러내는 망나니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대목이다.





비밀이란 온통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주파수를 지니고 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죄불이로 꿩꿩 동여맨 비밀이라도 도둑의 레이더에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가기란 쉽지 않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다.”

세상에는 비뚤어진 비밀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고 매일 수천수만 건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비밀과 거짓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기 마련이다. 은밀한 곳은 도적놈의 시선을 자극하고 거짓은 형사의 추리력을 피해 갈 수 없다. 잘잘못을 중재하고 제재하는 장치가 법의 기능이고, 판사는 이들을 심판한다.

“집 안에 꼭꼭 숨겨 둔 금고가 당신의 비밀을 지켜줄까?”

비밀의 배후에는 근심 걱정이 기다린다.

도둑놈의 레이더가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프라보워 정부의 식량 자립 정책과 지구촌 식량 위기



글: 조연숙,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인도네시아의 주요 명절인 이돌피트리와 성탄절이 다가오면 바왕메라(붉은 양파), 식용유, 설탕 등 주요 식품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상기후로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면 채소와 쌀값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국민 생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과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잡적입니다. 수요 증가와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 감소, 유통의 문제, 중간 도매상들의 담합과 시장 조작 등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도네시아 농업이 과도한 정부 의존, 영세 소농 구조, 농업 기술 부족, 농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저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고, 유통과 가격 관리의 취약성이 더해져 주요 식품 부족과 인플레이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식량 자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4~5년 내에 식량 자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량 자립 정책

프라보워 대통령은 식량 안보를 국가의 독립과 생존의 문제로 간주하고, 인도네시아 군(TNI)을 동원해 식량 생산과 유통을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각사무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 2월 3일 남부 자카르타 농업부 사무실에서 농민, 농업 노동자, 농업 지방 사무소장, 벼 및 쌀 도정 기업인 협회와의 회의에서 “식량 문제는 주권, 독립, 그리고 국가로서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이 되고 싶다면 식량 안보를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국에 농지 개발을 담당할 군부대 100개 대대를 창설해서 군 주도로 농업 및 축산 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업부는 농경지를 매년 75만 ha씩 추가해 향후 4년간 약 300만ha를 확대하고, 댐과 관개시설 61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시행한 학생 대상 무료 급식 프로그램도 이러한 식량 자립 정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군이 직접 식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군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무료 급식을 위한 식자재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에 프라보워는 곡물 가격을 감독하기 위해 군 지역 사령관과 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군사 전문가는 프라보워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민간 기관을 찾지 못하자 군에 의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 개입이 식량 생산 및 유통 관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군이 민간 경제에 개입할 경우 시장 경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며, 군 주도의 농업 생산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도 불확실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군의 민간 감시 강화와 권위주의 통치체제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국제 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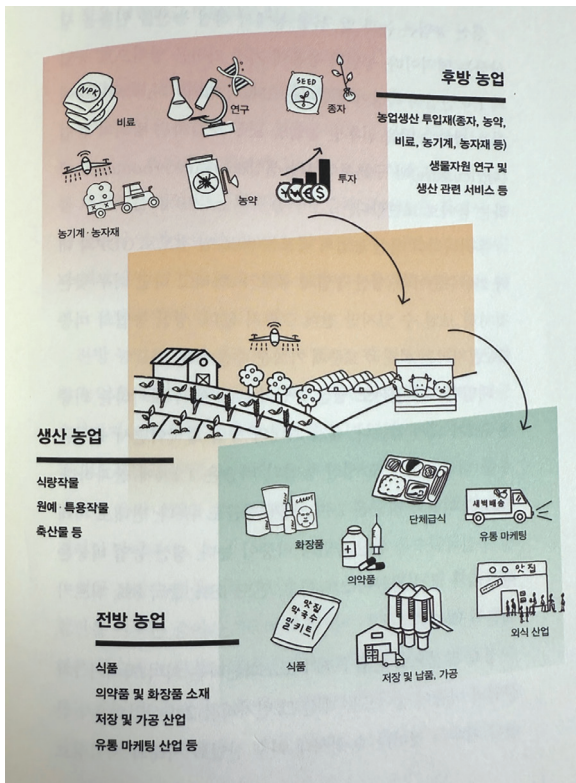
프라보워 대통령의 정책은 단순한 국내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제 식량 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식량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국가 간 식량 수출·수입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가 시행됐던 중국에서 소비 지역에서는 식량 부족, 생산 지역에서는 유통과 소비의 어려움으로 인한 식량 폐기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2년에 80억 명을 넘었으며, 2050년까지 100억 명을 부양하기 위해 현재보다 60%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 곡창지대가 위협받고 있어, 향후 식량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큼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쌀, 설탕, 대두 등의 주요 식량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려면 자국 내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은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역대 인도네시아 대통령들은 농업 육성과 식량 증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군을 참여시켜서 농업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안을 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지는 의문입니다.

식량 위기가 닥치면: 일본, 쿠바, 싱가포르

식량 안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고민거리입니다. 일본은 원인 규명도 못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고, 쿠바는 성과를 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유통 쌀의 ‘이상 부족’ 현상으로 쌀값이 두배 가까이 급등하고 있다. 쌀값이 전년 대비 69%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우와 이상기온, 농지 감소, 정부의 부실한 수급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추정을 냈지만, 일본 정부는 원인 규



명도 대책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가 생존이라는 뼈저린 각성을 한 사례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식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공급망이 싱가포르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2019년에 식량안보청(Singapore Food Agency, 이하 SFA)을 설립하고 ‘30 by 30’ 정책(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 30% 달성)을 추진했습니다. 자국 내 식량 비축량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수직 농장, 스마트팜, 식물 공장, 식용 곤충 양식 등 첨단 농업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등의 방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농업이 기반 산업이자 생존 산업이며, 화폐 가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산업 이상의 가치임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쿠바는 소련 붕괴 이후 소련으로 설탕 수출이 중단되고 소련에서 농업용 연료와 농약 수입이 끊기고, 미국의 식량 제재까지 겹쳐서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도시 농업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전체 채소 생산량의 60% 이상, 과일 생산량의 15% 이상을 도시농업으로 충당할 만큼 새로운 농법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식량 자립 정책의 환경적 딜레마

프라보워 정부는 식량 생산 확대를 위해 2,000만 ha의 산림을 농경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의 삼림 벌채 우려를 무시하고 팜유 농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홍수, 가뭄, 생물 다양성 감소, 탄소 배출 증가 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단순한 토지 개간보다 기존 식량 단지 복구, 바이오에너지 활용, 폐기물 재사용 등 지속 가능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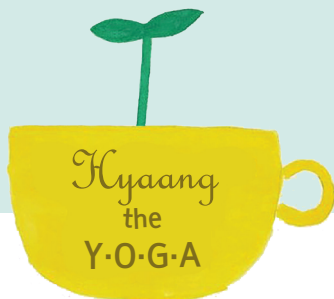
프라보워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량 자립 정책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식량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식량 자립 정책의 장점은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수입 의존도 감소,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통한 국민 복지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점입니다. 반면 한계점 및 위험 요소는 군 개입 확대에 의한 경제 시스템 왜곡과 비효율성 발생 가능성, 대규모 산림 개간으로 인한 기후 변화 악화, 기술 혁신 부족 등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의 민간 개입 확대가 권위주의 정치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농지 확장이 아니라 첨단 농업 기술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30 by 30’ 정책이나 쿠바의 도시 농업 모델처럼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

참고도서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

이주량 지음/세이지 출판사/2024년 출판



Hyaang, the yoga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가버디 michelle입니다.

안녕 반가워요. 향기님들~~

한 달동안 평안하셨나요?

평안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혹시 어떤 문제로 골치가 아프셨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그 일로 성장하면 그 뿐이니까요. 3월 한 달도 우리 힘내요!

우리의 목표동작은 낙타자세입니다.-무릎 꿇고 상체 세운 후 상체를 뒤로 완전히 넘기는 자세

우스트라사나(Ustrasana), Camel Pose 라고도 해요.

목과 어깨 그리고 등이 구부정하게 변하는 것은 노화로 인한 척추의 유연성 저하, 핸드폰을 오래 들여다보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잘못된 습관이 그 원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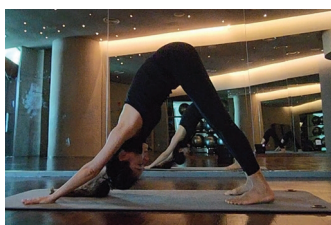
낙타자세는 자세도 교정효과 외에도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허리와 어깨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전체 동작, 천천히 해도 10분 안팎으로 끝날 겁니다.

자, 매트잡고 펼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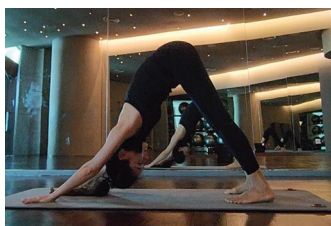
Phase1 워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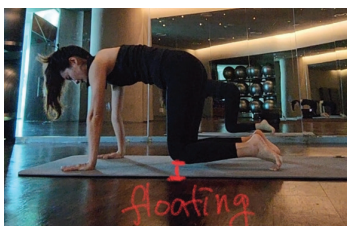
1. Adho Muka svanasana
(다운독)



2. Santolasana(플랭크)



3. Adho Muka svanasana
(다운독)



4. Bharmanasana
(무릎 떼고 테이블탑)

1. 오션웨이브(다운독-플랭크)

2. 다운독-플로팅 테이블탑

◆(다운독x플랭크) 10회

오션 웨이브로 몸에 시동을 걸고

◆다운독: 손바닥을 밀착시켜 앞으로 밀기, 코어에 힘, 어깨와 귀 멀게

◆플랭크: 팔 곧게 바닥과 직각, 코어 곧게, 어깨 움츠리지 않아요.

◆(다운독×플로팅 테이블탑 Floating table top) 10회

◆다운독

◆테이블탑에서 무릎을 살짝 떼고 10회 반복, 어때요?

몸이 서서히 데워지고 있나요…?



발등으로 버티며
플로팅 테이블탑으로 마무리

발등을 펴고 버티세요.
10초만!

5. Bharmanasana(무릎 떼고 발등 편 테이블탑)

다음은 Vinyasa 요가 수련 중 다음 흐름으로 넘어갈 때마다 반복되는 트랜지션 동작인

★ Vinyasa Flow



6. 다운독



7. 뒤꿈치들고



8. 무릎 구부리고 손과 손사이를 보세요.



9. 앞으로 점프,
Artha Uttanas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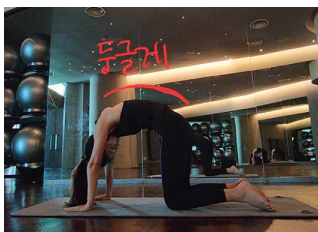
10. Uttanasana
(상하체 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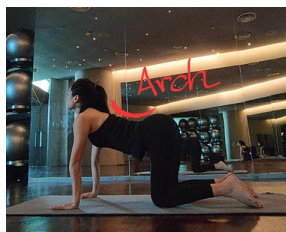
11. Urdhva Hastasana
(야자수자세)

무릎펴고 등펴고
손은 바닥이나 종아리 짚어요.

Phase2 백밴드 빌드업



1. C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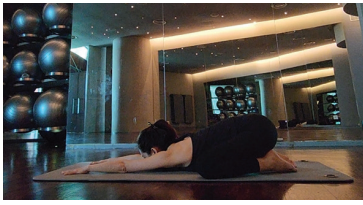


2. Cow

몸이 따뜻하게 데워졌으니 본격적으로 빌드업 해볼까요?

1. Cat & Cow
2. Puppy & Sphinx
3. 팔, 다리 들어 올리는 Locust(메뚜기) 자세
◆ (Cat X Cow) 4회
◆ Cat; 내쉬며 테이블탑에서 등 둥글게, 뱃가죽 등가죽 달라붙게
◆ Cow; 들이마시며 등을 Arch로 휘게 하세요.

◆ Child & Puppy & Spin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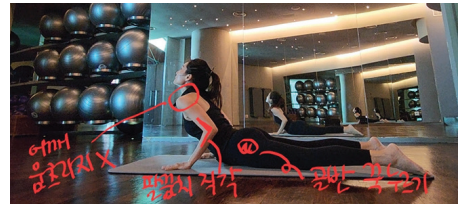
3. Child Pose

상체 낮게, 엉덩이 낮게



4. Puppy 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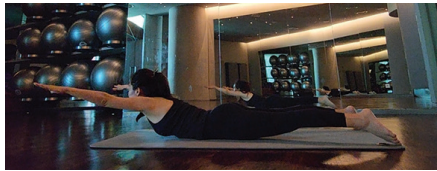
엉덩이 하늘로 높게 쳐들고
턱을 바닥에 대세요



5. Sphinx(Salamba Bhujangas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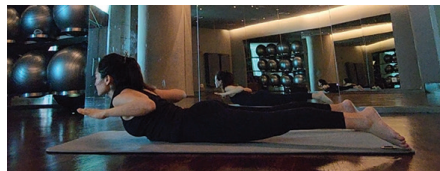
팔꿈치 직각, 어깨 쳐지지 않게,
골반을 지그시 눌러주세요.

◆팔, 다리 들어 올리는 Locust(메뚜기)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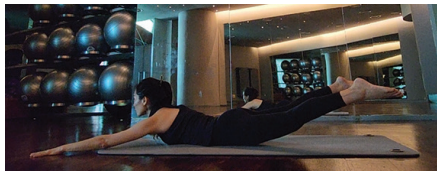
6. Salabhasa arm raise (팔든 메뚜기) X2

다리는 바닥에 내리고 상체만 들어
올렸다가 내쉬며 천천히 상체 내려
주세요x2



7. 팔꿈치 구부리며 상체를 더 든다 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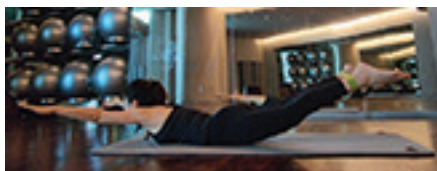
6번에서 팔꿈치를 구부리고 2초 후 팔 펴고
내쉬며 천천히 상체 내려 주세요x2



8. Salabhasana(Locust 메뚜기 자세) modified x4

엄지발가락과 엉덩이에 힘을 짝 주며 하체를 들어올리고 2초 후 내쉬며 다운 X4,
짱짱한 밴드를 발목에 걸고 하면 효과가 더 좋아요!

탱글탱글 애플힙!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9. 팔다리 든 메뚜기 Salabhasana (Locust Pose) modified x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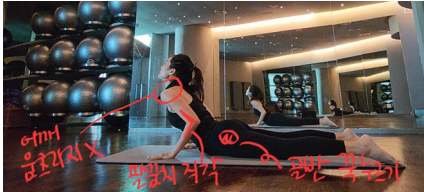
팔다리 같이 업! 손끝 발끝에 힘, 엉덩이도 짝 조이고!
그대로 10초 버티기!(팔다리 편 채로 작게 웨이킹 해도 돼요)

Phase3 백밴드 어드밴스

자, 이제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등을 휘게 해 보세요!

1. Baby Cobra 베이비코브라
2. Cobra 코브라
3. (Upward Facing Dog) 업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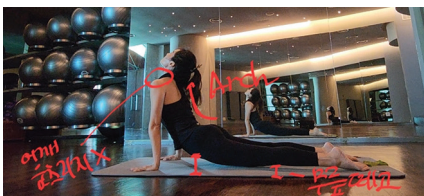
1. Bhujangasana 베이비코브라

◆Baby Cobra 베이비코브라 X4 손바닥 가슴옆에 대고 어깨 내리고 손바닥 밀면서 천천히 상체 들어올려 팔꿈치 90도 될 때까지 골반을 꼭 누르고 시선은 하늘, 어깨랑 귀는 멀게, 2초 유지
내쉬며 상체 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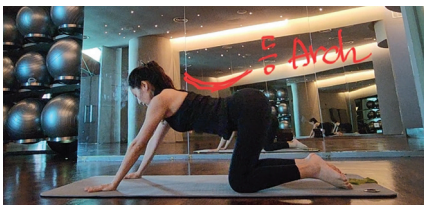
2. Bhujangasana 코브라

◆ Cobra 코브라 X4 베이비코브라와 같은데 팔꿈치 펴면서 등을 더 휘게 하면서 등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요. 골반을 꼭 누르고 어깨와 귀는 멀게 2초유지
내쉬며 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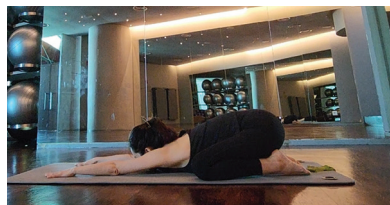


3. Urdvha Mukha Svanasana(업독)

◆ (Upward Facing Dog X Child) 4회 코브라랑 거의 같은데 무릎을 떼면서 상체를 더 깊게 아치로 휘게 할 수 있어요!
어깨 움츠러들지 않도록 주의
목을 길게 빼고 시선은 하늘 2초 유지
천천히 등을 아치로 만들며 아기자세, 상체를 낮고 길게 천천히 등을 둥글게 말며 다시 up dog 자세로



4. Cow



5. Balasana (Child 아기자세)



6. Cat

Phase4 목표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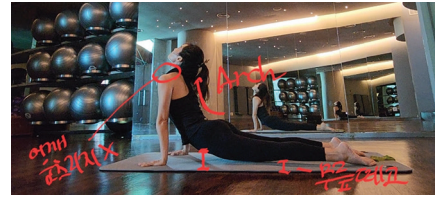
낙타자세(Camel Pose)

자 드디어 목표동작!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제 몸이 어느정도 따뜻 & 말랑해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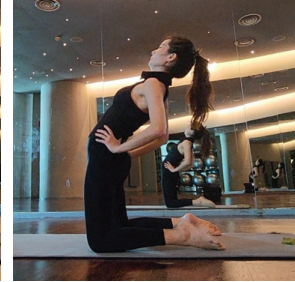
너무 힘들면無理하지 말고, 혹은 블록을 이용해도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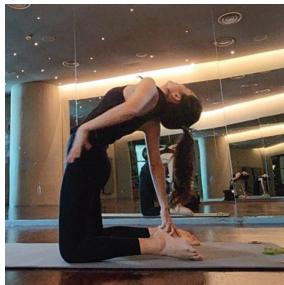
1. Child 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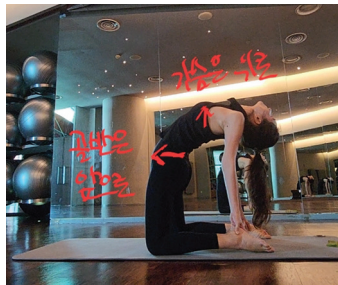
2. 무릎당고 천천히 상체 크게 세워



3. 허리에 손 짚고, 상체를 천천히 뒤로 젖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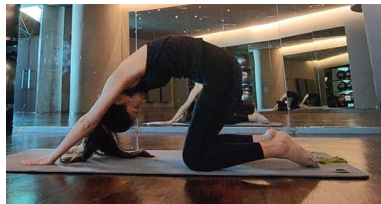


4. 오른팔 크게 뻗어서 뒤꿈치 짚고



5. Ustrasana Camel 낙타 자세

왼팔도 크게 돌려 뒤꿈치 짚어서 힘들면 양옆에 블록을 세우고 블록 짚고 해도 돼요. 골반은 앞으로 밀고, 가슴은 하늘로 밀어 올리듯이 상체가 완전히 열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하다가 천천히 상체를 세우세요.



6. Cat



7. Child 로 마무리 이 동작 중요해요!

Balance를 찾기 위해서 반대되는 동작으로 몸을 풀어줘야 하거든요 충분히, 천천히 10을 세고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Vinyasa flow 로 마무리해도 좋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몸의 근력보다도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특히 등이 그렇죠. 등 근육 만드는 게 복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만 근육보다 더 중요한 게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을 어느 정도 키운 다음 근력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Yoga instructor,

Michelle Yoga class <Hyaang, the Yoga>

운영그룹 및 개인수련 문의는 카톡 'tidapapa'로 문의주세요



마나도에 가서 마음의 고향을 얻다



<전망대에서 본 마나도 전경>

이효연(Kotra, 인도네시아비즈니스협력센터장)

발령을 받아 2023년부터 자카르타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잘 알려진 곳들을 모두 다녀와야겠다는 당찬 포부를 품었더랬다. 발리를 시작으로 라부안바조, 롬복, 길리를 다녀오고 드디어 마나도를 가게 되었다.

마나도는 인도네시아의 큰 섬들 중 술라웨시섬에 위치한 도시이며, 무슬림보다 기독교도가 더 많은 곳으로 알려져있다. 민족과 음식이 자와섬과는 다르며, 부나켄 해양국립공원이 매우 유명하다. 스쿠버 다이빙 스팟이 20여군데라고하니 가히 다이빙의 성지라고해도 부족하지 않을 곳이다. 역시 인도네시아는 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여행갈 곳이 매우 많은 나라다.

필자는 여행할 때 많이 알아보고 고민하지 않는다. 그곳에 유명한 할 것과 볼 것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비행기 일정과 숙소 사이트에서 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곳들을 좀 찾아본 후 예약을 마치는데 보통 만나질 정도를 소요한다. 혼자하는 여행을 잘 가기도 하고, 일행이 있는 경우 일행들이 내가 하고싶은 일정을 원하지 않으면 앞이나 뒤로 날짜를 추가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혼자 하기도 한다. 이번에도 스쿠버 다이빙은 혼자 하기로 계획에 넣었다.

마나도에 도착한 처음 인상은 우리나라 7~80년대 느낌이였다.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이구나 싶었지만 그만큼 물가도 싸고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관광객이 넘쳐나고 물가가 비싼 발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개발이 덜 되었다는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착하자마자 예약해둔 기사님을 만나 식당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조코위 대통령이 2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다는 식당으로 안내를 해주었다. 와 가격이 매우 훌륭했다. 외국인으로서 다니는 관광지 중에 마나도가 가성비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나도는 **참치요리**가 매우 대중적이며 저렴하다. 이렇게 생참치를 구워서 주는 요리가 보통 5천원 내외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식당을 거의 알아보고 다녔는데, 렌트카 기사님에게 이 인근에서 괜찮은 곳을 소개시켜 달라고하면 적당한 곳에 내려주었고 모두 맛있고 가성비가 좋았다. 걱정과 달리 한 번도 배탈이 나지 않았다는 것도 매우 감사한 일이었다.

마나도에서 할 것은 대강 3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1. 스쿠버 다이빙 또는 스노클링 2. 골프 3. 마나도 투어.**



<부나켄 국립공원 가는 배에서>

에 앉은 거북이와 눈을 마주치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다. 알록달록한 산호초가 넘쳐나는 라부안바조 같은 화려함을 없었지만, 바다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압도적인 풍경이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면 특이한 바다생물이 많다고 하니 어드벤처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곳에서 ‘물놀이’ 하면 추천하고 싶은 곳이 바로 **리하가 섬(Lihaga Island)**이다.

현지에서 만난 귀인이 알려주신 곳인데 트래블로카 앱에 찾아보니 이 섬을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우리는 귀인이 연결해주신 배를 타고 개인적으로 움직였지만, 번거로울 것 같으면 앱에서 신청해서 가도 좋을 것 같다. 이 섬의 가장 큰 매력은 새하얗고 매우 고운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백사장이다. 맨발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폭



<마나도 음식>

마나도의 첫 번째 매력인 스쿠버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하는 곳은 마나도에서 배를 타고 2~30분 가야하는 부나켄 해양국립공원이다. 공원 입장료를 받는데 외국인과 내국인의 가격 차이가 심하다. 잊지 말고 KITAS나 DINAS를 챙겨가서 내국인 요금으로 내기를 추천한다.



부나켄 해양국립공원에서 다이빙을 해보니, 왜 이 곳이 유명한지 알 수 있었다. 섬에서 불과 몇십미터 떨어져지 않는 곳에 똑 떨어지는 절벽이 끝도 없이 펼쳐져있었다. 그 광활한 절벽을 따라 다이빙을 하며 거북이가 오고가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었고, 나폴레옹 피쉬 같은 특이한 물고기도 볼 수 있었다. 막 바위



<리하가 섬>



<파라다이스 리조트 골프장>

신거리는 부드러운 그 느낌... 그 모래를 밟고 산책을 하다 바다에 뛰어들면 깊이 1~2미터에 불과한 낮은 깊이에서 스노클링이 가능하다. 바다속을 즐기기에 충분한 산호초와 물고기 등이 있으니 하루를 온전히 이 곳에서 보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섬에 들어가면 구멍조끼, 스노클장비, 가이드까지 다 현장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1인당 20만루피아 정도 비용이 들었으니 그리 비싸지는 않은 것 같다.



두 번째인 골프는 마나도 시내에서 1시간20분 정도 떨어져있는 **파라다이스 리조트**에서 하시기를 추천하고 싶다. 와 이 리조트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었다.

우선 리조트내의 해변은 검은 모래이지만 바다를 보며 멍때리기에 충분히 좋은 멋진 해변을 가지고 있다. 하루 정도는 해변에서 뒹굴거리면서 시간을 보낼만한 가치가 있었다. 늘 여러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며 저글링하는게 일상인 필자는 인도네시아에 오면서부터 멍때리기를 터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그 멍때리기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바다였다. 파라다이스 리조트의 해변도 2, 3시간 멍때리기에 충분히 좋은 바다였다. 특히, 파라다이스 리조트에는 해수 온천을 연결한 풀이 있어서 그 따끈한 풀에는 발을 담그고 있는 어른이나 어린아이들이 늦게까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허나 이 리조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골프장이다. 여기 숙박하며 KITAS가 있으면 그린피가 주말에도 80만루피아 정도밖에 하지 않았고(지금은 가격이 변동되었을 수도 있다.), 골프장이 매우 넓어 주말에 골프대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가했다. 더구나 거의 모든 홀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거나

시야가 탁 트여있거나, 또는 넓은 바다를 바로 눈앞에 둔 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을 아무리 잃어버려도 화가 나지 않았다는 말씀. 이 뷰를 보며 드라이버를 날려봤는데 공 좀 잃어버린다고 무슨 대수이겠는가!!

오래된 리조트인지라 방의 컨디션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을 조금씩 계속 하는 것



<예수님 상>

같았고, 조식이 거의 현지식이기는하나 인도네시아의 보통 호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큰 불만 없이 숙박 할 수 있다. 한국과의 비행거리가 4시간 정도라는 마나도에 한국과의 직항이 생긴다면, 이 리조트를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라도 마나도를 재 방문할 의사 100%이다.

마지막으로 할거리인 **마나도 투어**는 네이버에서 검색만 해봐도 갈 만한 곳들이 대충 추려진다. 필릭이는 옷자락에 매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대한 **예수님상**, 마나도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 곳곳에 있는 폭포들, 마나도의 전통술인 독주 **잡티쿠스(Cap Tikus)**를 만드는 **양조장**, 호수라고 써있으니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냥 봐서는 바다인지 강인지도 알 수 없는 거대한 **또모혼(Tomohon) 호수**까지 하루 정도면 충분히 돌아볼 수가 있다.



<Tekaan Telu폭포>



<Cap Tikus 양조장>

필자는 지금도 머리가 아프거나 답답할때면 부나켄 바닷속의 광활함이나, 리하가섬 백사장의 부드러움 또는 파라다이스 리조트 골프장의 아름다움을 떠올린다. 내 마음의 고향이 되어버린 마나도, 그 곳에 언제나 다시 가고 싶다. 다만 이 모든 소회와 기억은 온전히 주관적인 것이니, 혹시 이 글을 보고 갔다가 맘에 안드시더라도 필자를 탓하지는 마시길. 자고로 투자와 여행지 선택은 온전히 본인의 책임인 것.

마지막 희망 Harapan Terakhir



Wilujeng Eraningtyas (Surabaya Korean Cultural Center)

2015년에 고등학교 2학년인 16살 소녀가 꿈을 해매고 길을 잃어버린 듯한 상황에 갇혔을 때

“계속 이러다 보면 내 미래 바꿀 수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평범한 학생으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순식간에 1학기가 끝났고 방학이 다가왔다. 결국, 옛날 나의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으로 떠나기로 했다. 가족과 함께 1박 1일 동안 버스와 배를 교체로 갈아타서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다. 반가운 얼굴들이 오랜만에 마주쳐서 기분이 엄청 설레고 행복했다. 그 와중에 한 명 사촌 언니가 나를 보고 “아중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너 많이 피곤하겠다. 오늘은 꼭 쉬고 내일 재밌는 거 보여줄게!” 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에 언니가 한국 예능 방송을 보라고 해서 ‘러닝맨’을 같이 보게 되었다. 몇 화인지 기억이 잘 안 났지만 샤이니 민호 나온 화가 확실했다. 언니가 워낙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방송을 보기 좋아하고 한국 아이들도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나에게 많이 알려주었다. 다음 날에 언니가 한국 드라마도 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드라마에 끌렸다.

“언니 보여주고 싶은 재미가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주 빠른 시간에 이런 재미에 공감해 되었다. 이제는 언니가 무슨 방송을 보라고 말을 안 해도 내가 스스로 언니에게 더 많이 보여달라고 했다. 흘러가는 시간을 신경 안 쓰고 오직 노트북 앞에 한국 드라마도 보고 예능 방송도 보고 리얼리티 방송까지 나의 하루하루가 재미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때 나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한 가지 결핍이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라서 한국어를 못 알아 들었다. 한국 방송을 인도네시아와 영어 자막 꼭 붙여서 보는 것이 좋지만, 자막 없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어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한글 말고 인사부터 공부했다.

한국어 인사말을 공부한 다음 날에 내가, 언니에게 “언니,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다.” 그럼 언니는 “뭐야? 이제 한국말 하게?”라며 물었다.

“응, 나 지금부터 한국어를 공부할 거예요.” 언니에게 당당하게 대답했다.

방학이 끝났고 다시 학생으로 내 생활이 이어진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공부도 이어진다. 드디어 꿈이 생기는 모양인 것 같은 기분도 느껴졌다.

“한국어를 꼭 잘해서 한국으로 떠날 거다, 오늘부터 내 꿈이다.”

그날 나의 마음이 뜨거웠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길래 학교에서 수업 없을 때, 쉬는 시간 때도 매점에 안 가고 나의 자리에서, 나의 소중한 한국어 책만 봤다.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이 맞는지, 내 부모님이 반대는 안할런지, 이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감이 아예 없었다. 친구들에게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리고 싶어서 개인 인스타그램에 나의 한국어 책 사진도 올렸다. 캡션은 “내 미래를 위해 이것을 배워야 할까?” 라고 썼다. 그래, 이게 바로 나의 희망이다, 결연한 나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다는...

또 다른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좋아하고 아주 사랑하는 엑소 오빠들이다. 오빠들 사진을 보고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다. 오빠들과 같은 나라에서 살고, 같은 언어로 말을 하고, 얼마나 좋을지 상상까지 넘쳤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팬으로서 한국에서 콘서트 직관하는 것도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다. 팬사인회, 팬미팅, 생일 파티, 생일 카페, 다양한 팬 이벤트 등등. 그래, 나는 미친 여자 같았다. 인생에 대해 너무 간절해서 이런 행복한 상상을 이어갔다.

이 모든 희망을 품고 한국어 학과를 1번 선택 학과로 결정했다. 2017년에 인도네시아의 대학 입시 시험을 봤는데 아쉽게도 떨어졌다. 그런데, 나는 생각보다 많이 슬퍼하진 않았다. 내년에 다시 시험 보면 된다고 했다. 1년 동안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어도 꾸준히 공부했다. 2018년에 나의 두 번째 시험이라 많이 떨리진 않았지만 또 떨어질까 봐 걱정했다. 결국, 다시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 모든 노력 끝에 실패를 만나다니, 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방 안에서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다.

두번째 선택 학과를 통과했지만 나의 마음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다. 1학년 내내 한 번 버텨보려고 하는데도 괴로웠다.

그래, 여기 나의 자리가 없으면 바로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 나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허락해줘.” 라고 말을 했다.

“너 지금 재학 중인데 갑자기 유학을 왜?”

“솔직히 이 학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있어. 알잖아, 나 한국어 학과 들어가고 싶었다고. 나 장학금 받고 유학 갈 거야, 걱정 마 아버지.”

“자신 있어? 네가 자신만 있으면 아버지가 응원해 줄게.”



어머니는 처음에 나의 유학 계획을 듣고 반대하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니까 허락해 주셨다. 나는 어머니와 친하지만 아버지와 더 친구같이 지내서 이 계획에 아버지의 진심어린 응원 덕분에 내가 더 든든해졌다. “나 이번에 반드시 합격할테니, 아버지 좀만 기다려” 나의 한마디에 아버지가 웃으셨다. 결국, 장학금을 받게 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원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부모님 위해서라도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했다. 그 이후로 어떤 과목이든 과제 있으면 최대한 한국과 연결하고 집에서 한국어도 그대로 깨끗하게 공부했다. 반 친구들이 나에게 ‘한국 전문가’ 별명도 지어주었다. 하긴, 나는 한국에 너무 집착해서 그랬나 보다.

2020년 8월 22일에 국제법 과목을 듣는 중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날의 쏟아진 눈물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다. 나는 아버지를 행



복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지 모른
체 나의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남겨진 사람은 그저 슬프지만 인생은 멈추지 않
는다. 이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머니와 동생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됐고 꼭 강
해진 딸과 누나가 되어야 했다. 나의 대학 생활은
그대로 이어지고 아버지 없는 세상은 외롭지만 조
금씩 적응이 되어갔다.

2022년 어느 날, 도서관에서 논문을 작성하다가
너무 지루해서 잠깐 온라인 한국어 책을 검색했
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한국어만 똑바로 알면
산다’ 그때는 몰랐다. 이 문장의 깊은 뜻을.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이라도 계속 존재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살
지. 내가 뭐? 지금까지 실패는 한두 번도 아니잖
아. 이제 와서 포기하려고? 아니, 실패해도 좋아!
다시 해보면 되잖아!” 라고 마음 먹은 뒤에야 깨
닫게 되었다.

2022년 연말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했고, 한국
대학원 한국어 학과는 나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
2023년에 장학금 프로그램을 다시 지원했고, 다
시 떨어졌다. 내년에도 지원할 생각이 있어서 1년
동안은 한국과 한국어 관련 일을 하려고 했다. 온
라인 한국어 강사도 하고 한국 여행사에서 인턴십

도 해봤다. 2024년 2월에 다시 지원하게 되었는
데 설마 다시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하긴 했다.

결국, 다시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 모
든 실패의 의미가 뭘까? 내 친한 친구들은 다 잘
됐는데 왜 나만 이런 모양일까?” 잠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디가 잘못이었을까, 지난 9년을
되돌아봤다.

열여섯 소녀는 이제 스물다섯의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한국에 꼭 유학 가는
희망을 꼭 안고 살아왔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가끔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큰 딸이 꿈을 꼭 이루고 성공한 사람이 될 거니까,
걱정 마.” 라고 다짐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도 그
렇고 주변 사람들도 끊임없이 나를 응원해 주고
기도해 줘서 정말 고마웠다. 앞으로는 나이 먹어
도 이 희망은 간직할 것이다. 다시 실패하면 잃을
것도 없고 자신 있게 직진할 생각뿐이다. 장학금
을 받지 못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내가 번 돈
으로 한국에 유학 갈 계획이다. 마지막 숨이 끊어
지기 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꿈을 위해.
부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까지 나에게 힘과 복
을 주셨으면 좋겠다.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법률용어사전 발간

법률 소통의 가교 역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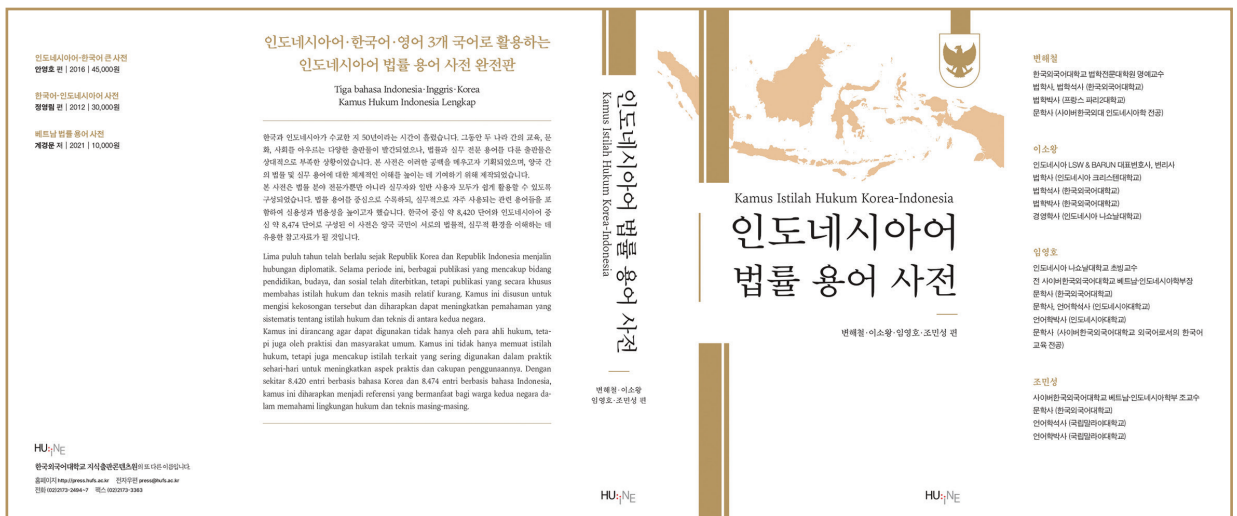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법률용어사전은 한국법제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5년 전 출간된 ‘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법률용어사전’을 기반으로, 이후 2년에 걸친 체계적인 검토와 수정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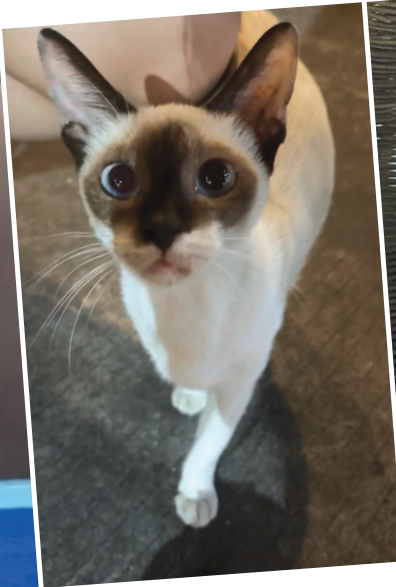
이번 사전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무자와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률 용어를 중심으로 수록하되,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관련 용어까지 포함하여 실용성과 범용성을 높였다. 한국어 중심 약 8,420 단어, 인도네시아어 중심 약 8,474 단어가 수록되어 있어, 법률 용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실무적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며 법체계 및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 사전은 단순한 번역 작업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였으며, 법률적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본 사전이 양국 국민이 서로의 법률

적, 실무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용어사전 발간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법률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서 비즈니스, 이민, 법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정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실용적인 법률 용어사전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길에서 만난 춘향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된 아기 고양이들



춘향이 프로필

- 이름: 춘향이
- 나이: 모름
- 출생: 길고양이
- 종: 삼
- 특징: 파란 동그란 눈, 삼 고양이 특유의 아름다운 털색, 짧은 털, 긴 꼬리, 그리고 핑크 젤리 발바닥



춘향이와의 첫 만남

제가 춘향이를 처음 만난 곳은 자주 가던 카페 근처의 길이었어요. 그날, 길을 걷고 있는데 한 고양이가 저에게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어요. 처음 보는 고양이였지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스스럼없이 다가오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는 개냥이다!

춘향이는 사람의 손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쓰다듬어 주면 더 기분 좋아하며 제 손에 얼굴을 부비곤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원래 가정에서 키워지다가 유기된 아이가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보니 너무 마른 몸에 비해 배가 유난히 볼록한 게 눈에 띄었어요. 그제야 춘향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길 위에서 춘향이를 만난 후, 저는 카페에 앉아 있을때도 계속 춘향이가 걱정되었어요. 너무 말라 있는 데다 임신까지 한 상태였으니까요. 저라도 돌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빠에게 연락해 집에 데려가도 될지 여쭙었어요. 다행히도 동물을 좋아하시는 아빠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저는 춘향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 그리고 출산

집에 도착한 춘향이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긴장했지만, 원래 키우던 저희 고양이 똥이와 슈슈가 더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하악질도 하고 경계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그리고 몇 주 후, 드디어 춘향이가 출산을 했어요. 아기 고양이는 두 마리였고, 신기하게도 엄마인 춘향이를 닮지 않았어요. 아빠가 길고양이였던 탓인지, 두 마리 모두 길에서 보던 다른 고양이들과 더 닮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두 아기 고양이 모두 짧은 꼬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였어요. 아마도 춘향이가 길에서 생활하며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영향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기들은 건강했고, 엄마 춘향이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성격도 제각각, 개성 넘치는 아기 고양이들

같은 날, 같은 어미에게서 태어났지만 두 아기 고양이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고양이는 까만 털을 가진 친구인데, 성격이 소심하고 낯을 가려요. 사람이 지나가면 얼른 숨어버리고, 가족들이 다가가도 경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가끔씩 놀 때는 한껏 신나게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기도 해요.

반면에 둘째 고양이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어요. 사람을 좋아하고 활발하며, 호기심도 많아요. 집안 곳곳을 탐험하며 어지럽히는 사고뭉치지만, 손을 내밀면 바로 와서 부비적거리며 애고를 부려요. 만져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언제든지 곁에 와서 몸을 맡기는 아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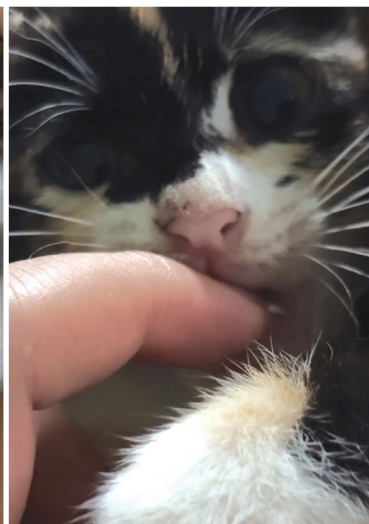
같은 어미에게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자라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어요.

LOVE
CAT

집사 소개

김미연(JIKS, 12학년)

김종빈(Kartika, 5학년)



인도네시아 대학 수업에 <오징어 게임> 등장



Wilujeng Eraningtyas

(Surabaya Korean Cultural Center)

지난 1월 19일 ~ 1월 23일, 서울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 프로그램을 통해 5일 동안 인도네시아 대학교 ‘마타람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디지털 비즈니스 수업을 진행했다.

기초 한국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했다. 그중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온 공기놀이 게임을 학생들이 체험해 보았다. 서울대학교 단원들이 학생들에게 “이 놀이를 어떻게 알아요?” 물어볼 땐 학생들이 한결같이 “오징어 게임~” 이라고 대답했다.

학생들이 조별로 10분 동안 공기놀이를 해본 다음에 제일 잘하는 친구를 뽑아서 교실 앞에서 공기놀이를 했다. 공기 알을 가장 많이 잡은 학생에게 한국 마블사탕을 주었다. 학생들은 이 놀이가 인도네시아 현지 전통 놀이랑 비슷한 점도 있어서 즐겁고 재미있다고 말했다.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전통 놀이를 알게 된 인도네시아 시청자들은 문화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서로의 문화에 더 친숙히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땅그랑 세종학당: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만나다

2025년 현재, 인도네시아 땅그랑 지역의 땅그랑 세종학당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2021년 이페카 기독교 학교(IPEKA Christian School)와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의 협력으로 설립된 이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확장된 교육 공간과 프로그램

2024년 11월, 이페카 BSD 캠퍼스 내 새로운 학당 사무실 개소 이후, 더 많은 학생이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대했다. 현재

윤지영

(땅그랑 세종학당 팀장)

땅그랑 세종학당은 수준별 한국어 강의뿐만 아니라,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전통 문화 체험, K-POP 및 K-드라마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냠냠 코리아(Nyam Nyam Korea)’와 같은 전통 음식 체험 프로그램, ‘세종학당재단 말하기 대회(KSIF Speech Contest)’ 등의 행사는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직접 발휘하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학 협력을 통한 실질적 기회 제공

땅그랑 세종학당은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 및 기업과 협력하여 한국어 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UPH(Universitas Pelita Harapan), UMN(Universitas Multimedia Nusantara)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복 체험, 전통 놀이, 한국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지 기업과 연계한 한국어 인턴십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 중이다.

한 재학생은 “땅그랑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유학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며 학당이 현지 학생들의 미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2025년, 더 넓어진 문화 교류의 장

땅그랑 세종학당은 2025년에도 적극적인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025년 3월, 인도네시아 최대 문화 축제 중 하나인 ‘한-인니 문화 교류 페스티벌’에서 한국 전통 공연과 한국어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수많은 방문객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다.

또한, 2025년 7월에는 ‘브로드웨이 마켓 Vol.5: K-Culture Edition’에 참가해 판소리 공연, 한글 캘리그래피, 전통 공예 체험 등을 선보이며 더욱 풍성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비전

땅그랑 세종학당은 단순한 한국어 교육 기관이 아닌,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잇는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지은 학당장은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열린 배움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도 땅그랑 세종학당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한국어 교육과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땅그랑 세종학당 공식 홈페이지: ksitangerang.id

– 인스타그램: [@ksi.tangerang](https://www.instagram.com/ksi.tangerang)



김종헌 한인회장, K-Move 스쿨 통해 인도네시아 취업 지원 강화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K-Move 스쿨이 2025년 인도네시아 아트마자야 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하고, 다양한 한인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무궁화유통 회장이자 제7대 한인회장인 김종헌 회장이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번 K-Move 스쿨에는 10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김종헌 한인회장을 비롯해 코린도 재무 상무,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지점 법인장, 태광실업 재무차장, KB Bukopin 은행장, 한인니청년기업가협회 회장, 한인뉴스 편집위원 등 9명의 한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내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 노무 및 인사 관리, 경영 사무, 서비스, 영업판매, 무역 및 물류유통, 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별 사례를 다루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현지에서 요구되는 인재상과 면접 준비 방법을 소개하고, 모의 면접을 통해 참가자들의 실전 경험을 강화했다.

강의 마지막 날에는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과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이강현 회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현지 취업과 창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은 현장의 실무 경험과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또한, 김종헌 한인회장은 설 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는 학생들을 위해 무궁화슈퍼 본점으로 초대해 따뜻한 떡국과 명절 음식을 대접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현지 한人社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외대는 2015년부터 K-Move 스쿨을 운영하며 7년 연속 전국 대학 중 해외 취업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청해진 사업단 등 국고 지원 해외 연수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국내 교육비 지원, 취업 후 출국 항공료 지원, 이력서 첨삭 및 면접 대비 교육,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되었으며, 최대 200만 원의 연수장려금과 월 최대 50만 원의 국민취업제도 연계 지원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은 참가자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현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었다.

K-Move 스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

(제공: K-Move스쿨)



우리의 이야기도 기사가 됩니다

An illustration featuring two characters. On the left, a man with glasses, wearing a light-colored vest over a white shirt and dark pants, is holding an open book and looking at it. On the right, a woman with dark hair, wearing a dark jacket, is sitting and resting her chin on her hand in a thoughtful pose. The background is a light beige color with a large white circle behind the text.

인도네시아 한인학생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할
한인뉴스 학생기자 모집

모집대상

글쓰기에 관심있는 인도네시아 거주 고등학생

모집기간

2025년 3월 1일~ 4월 10일

제출서류

관심분야 기사 혹은 에세이(A4 한두 장 분량),
학생증사본

제출방법

간단한 프로필과 관련 서류를
haninnewsinni@gmail.com으로 송부

접수 및 문의

한인뉴스 홍석영 편집장 0818 711246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제88회 열린강좌

최경희 박사의 '자카르타인들의 삶과 가치관' 강의 열려

지난 1월 11일 오전 한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 경)에서 제88회 열린강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강좌는 KOSA(한인중소벤처기업협의회) 후원으로 동남아시아 연구에 깊이 있는 학문적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최경희 박사를 모셨다.

<자카르타인들의 삶은 어떠한가? 그들의 사회 인식과 가치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최경희박사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자 한인니문화연구원 부원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KBS1 <이슈 PICK 썸과 함께>의 아세안 재발견 '인도네시아' 편에 출연하여 인도네시아의 비전과 숨겨진 매력을 알린 전문가이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지식 정보시스템 기획위원으로 동남아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팀이 2021~2022년 진행한 아시아 대도시 가치조사를 기반으로, 자카르타와 서울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경제적 안정감, 사회적 신뢰 등의 차이를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자카르타 시민 중 76.6%가 삶에 만족한다고 답변 반면, 서울 시민은 42.3%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낮았다. 경제상황, 주택 불안정성, 일자리 불안정성 등 세부 항목에서는 자카르타와 서울이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자카르타 시민들이 훨씬 높았다. 이는 인도네시아인들의 삶의 가치 중 '조



화(Rukun)'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외부 환경보다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자카르타 시민들은 가족(95.6%), 신앙(93.9%), 물질적 풍요로움(95.9%) 등을 꼽았다. 특히 신앙(믿음)에 대한 응답 비율이 93.9%로, 조사 대상 도시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은 30.3%로 크게 낮았다. 흥미로운 점은 종교성과 물질적 가치가 자카르타에서는 배타적이지 않고, 종교는 종교, 경제는 경제로 분리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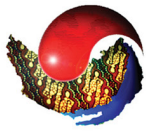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자카르타인들은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며, 신앙과 물질적 풍요를 동시에 추구하는 독특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이질적인 문화적 토양과 다른 경험을 한 한국-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발전적 공존을 위해서, 서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파악하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열린강좌는 그 여정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화로운 삶'이라는 추상적 가치가 자카르타의 구체적인 생활 조건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는 강연자의 깊은 학문적 통찰과 따뜻한 시선이 인상적인 강의였다.

후원: KOSA

(한인중소벤처기업협의회)

(제공: 한인니문화연구원)





한인문화연구원
Indonesian & Korean Culture Study

342회 문화탐방



〈독립운동가 장윤원, 1920년 자택에 첫발을 내딛다.
- 그가 걸었음을 예술의 향기를 따라〉

2025년 3월 15일 (토) 9:00~13:30

📍 탐방지:

- 🎨 TIM
- ☕ Bakoel Koffie
- 📖 Post Kantoor Koffie·Art·Kultur
- 🏠 장윤원 자택
- 🏛️ Tugu Kunstkring Paleis

📍 신청 및 문의:

- ☎ 08515-7447-811 / 카톡: ikcskr
- 🌐 band.us/@ikcs
- 💰 Rp. 400,000



2025 이달의 시사상식

1. 딥시크(Deepseek)

‘딥시크’는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AI 스타트업 기업이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AI)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의 수출규제 속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빅테크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AI 모델을 만들어 업계 안팎에 큰 충격을 준 기업이다.

2.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는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센터로,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로 운영된다.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크게 다친 환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의료진이 빈틈없이 상주해야 하며, 급박한 수술을 ‘바로’ 진행해야 하기에 전담의들의 겸직은 명백한 금지 행위다.

3. 기후음모론

‘기후음모론’이란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의 급속한 온난화가 엄연한 사실이라는 과학계의 광범위한 합의와 달리, 기후변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음모론이다. 기후 음모론자들은 기후위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핵심 논리에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한다.

4.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해 작동되는 미래형 컴퓨터’이다. 1982년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됐고, 198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데이비드 도이치 박사가 양자컴퓨터의 실질적 작동 원리를

고안했다. 현재는 주요 선진국들의 연구소들과 세계적 기업들이 이를 연구하고 있다.

5.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은 여러 이유에 의해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을 가리킨다. 이혼, 별거, 사별, 미혼모·미혼부의 발생 등으로 인해 부모 한 명이 아이들과 가정을 꾸린 경우들이다. 형성 배경에 따라 이혼 가정, 사별 가정, 미혼모 가정으로 보기도 하고,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부자 가정이나 모자 가정으로 분류한다.

6. OOTD

‘OOTD’는 ‘Outfit Of The Day’의 약자로 오늘 입은 옷차림, 오늘의 패션을 뜻한다. 당일 또는 특정 상황에서 입은 자신의 옷차림을 촬영하여 SNS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연예인이나 셀럽들의 사복 패션이 유행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오늘 입은 옷을 SNS에 공유하고 OOTD 해시태그(#)를 다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7. 항공안전감독관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 정비 시설 등 항공 관련 기관과 시설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전문 인력이다.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의 괄 추락사고 이후 정부가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적을 받아 1999년 도입한 제도다.

8. 뇌 가소성

‘뇌 가소성’이란 이처럼 뇌가 경험과 학습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9. 농업e지

‘농업e지’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농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자신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기반으로 정부의 농업 관련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름의 ‘e지’에서 알 수 있듯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쉽게 지원사업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10. 트롤리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는 소수를 위한 다수의 희생과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트롤리 딜레마는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에 언급되면서 더 널리 알려졌다.

11. 커넥톰

커넥톰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의 용어에서 유래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체의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놈을 해독해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는 연구 작업으로, 2001년 완성됐다. 이후 여러 질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치료에 실제적인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12. 이중가격제

‘이중가격제’는 동일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거래자나 장소에 따라 두 가격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말 그대로 같은 재화나 서비스인데 몇몇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다.

13. 호킹 지수

호킹 지수’는 책을 구입한 독자가 실제로 책을 읽었는가 따져보는 지수이다. 책 전체 페이지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독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관심 있는 책을 구입해 몇 장 읽지도 못하고 도중에 포기한 책일수록 호킹 지수는 낮아진다.

14. 영구동토층

영구동토층은 지중온도가 일 년 내내 물의 어는점 이하로 유지되는 토양층, 지질학적으로는 2년 이상 토양온도가 0도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주로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운 고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토양의 연평균 온도가 결빙점 이하라 하더라도 표층에서 가까운 깊이에서는 여름철에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 얼음이 녹게 되고 습지를 이루게 된다.

15. 헤지펀드

헤지펀드(Hedge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일종의 사모펀드로, 시장 상황에 개입치 않고 절대수익을 추구한다. 어원으로 살펴보면 헤지(hedge)는 울타리, 장벽, 방지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흔히 우리 일상에서 울타리나 장벽 등을 세우는 것은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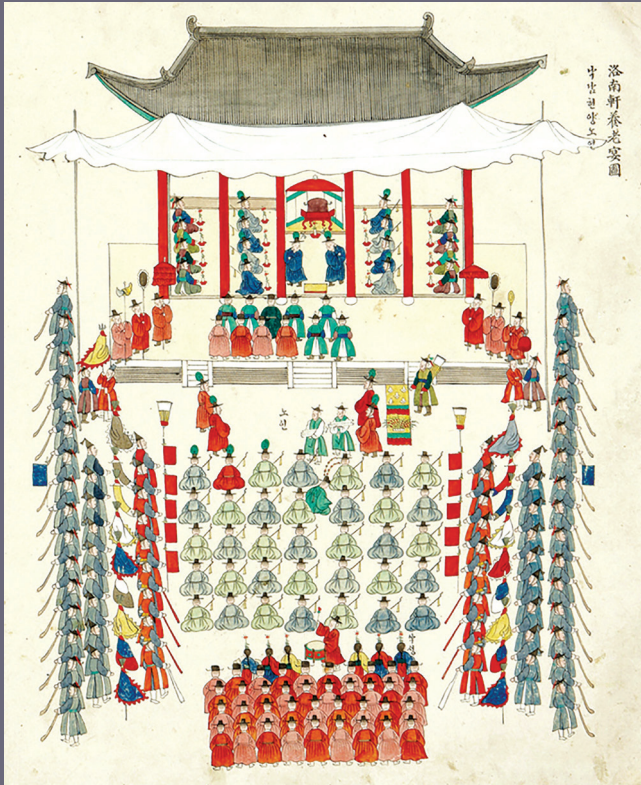
16. 가안비

‘가안비’는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를 하는 유형을 말한다. ▲ ‘가격 대비 성능(기능)’을 추구하는 소비자’인 ‘가성비 ▲가격대비 심리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소비자인 가심비와 달리, 가안비는 안전을 위해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처: 카드로 보는 시사상식)

세계가 기억하는 한국의 기록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 의궤(儀軌)

의궤는 조선왕조에서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국가 의례를 중심으로 국가의 중요 행사를 행사 진행 시점에서 당시 사용된 문서를 정해진 격식에 의해 정리하여 작성한 기록물

‘기록유산’은 전 세계 민족의 집단 기록이자 인류의 사상, 발전, 성과의 진화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자로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 비문, 시청각자료, 인터넷 기록물 등을 망라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은 유네스코가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992년

‘세계의 기억(MOW: 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기록유산의 보존 필요성 인식 증대와 세계 각국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작됐다.

많은 기록유산이 이미 영원히 사라졌고,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다행히도 누락된 기록유산이 재발견되기도 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은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미래 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존하고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이 보존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나라는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8건의 세계기록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록유산이 전 세계적인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받길 기원하며 국가유산청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1월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년 등재)



2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2017년 등재,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소장)



3월

조선왕조 의궤
(2007년 등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4월

난중일기
(2013년 등재, 현충사 관리소)



5월

동학농민혁명기록물
(2023년 등재, 천도교 중앙총부 소장)



6월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년 등재)



7월

조선왕조실록
(1997년 등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8월

직지심체요절
(2001년 등재,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9월

조선통신사기록물
(2017년 등재,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10월

훈민정음
(1997년 등재, 간송미술관 소장)



11월

동의보감
(2009년 등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12월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2017년 등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025 국가유산청 달력으로 만나다

국가유산청은 세계기록유산의 대중화와 보존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록유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되새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세계기록유산의 교육적 활용과 지속가능한 유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 2025년 국가유산청 달력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

(제공: 월간 국가유산사랑)

중재(Arbitrase) (2)

(전호에서 계속)

7.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한국에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있듯이 인도네시아에도 중재기관이 있다. 즉,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I), 이슬람 중재원(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I)와 독립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IDRC)가 있다. 이 기관들은 모두 정부기관이 아니고, 사설단체에서 설립된 사립단체들이다. BANI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KADIN)에서 설립했고, BAMUI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MUI)에서 설립했으며, IDRC는 이 분야에 뜻을 가진 개인들이 설립했다. 이 중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New York협약)”에 의거하여, 한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이나 개인사업자,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에 대하여 설명한다.

8.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BANI는 1977.12.3. 설립됐으며,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재기관이다. BANI는 법적으로는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은 국내외적으로 공적 기능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가. BANI의 중재 영역 : 모든 분야의 상거래나 합작투자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나. 중재 기본 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중재조항을 기재하거나 사후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BANI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1). 표준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I)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BANI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2). 표준 영문 중재조항 “예”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Indonesia in Accordance with the BANI's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3). 표준 인도네시아어 중재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Uang keputusannya mengik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다. 중재청구 등록

청구인은 BANI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구등록은 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서명 혹은 상호, 주소 혹은 연락처
- (2). 분쟁내용 설명
- (3). 청구내역 (요구사항)
- (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재 청구합의서
- (5). 제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
- (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I에 지명 의뢰의사 표시
- (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 (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중재처리 규정

중재는 BANI의 중재처리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중재부(재판부)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 (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 (2).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 지

정할 수 있으며, BANI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재부장이 된다.

(3).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I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인측에서 중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 데,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니, 중재청구를 당하면, 피청구인이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만,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소송법절차대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일반법정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삼심급제에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는데 비해,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도네시아의 명망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교수,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기술전문가, 기타 전문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있다. 이 중에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바. 중재비

- (1).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액(단위:루피아)	중재비(%)	청구액(단위:루피아)	중재비(%)
10억 미만	10	500억	3
10억	10	1000억	2
25억	9	2500억	1.5
50억	8	5000억	1
75억	7	1조	0.8
100억	6	2조	0.6
150억	5	2조 이상	0.6
250억	4		

(2). 상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록 통지가 가며,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쉼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재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쉼석판결을 내릴 수 있다. 쉼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쉼석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쉼석판결문의 내용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I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인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대한상사중재원에,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쉼석중재판결을 맞아,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U.N. 협약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법원도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중재원의 판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그냥 놔두지 말고, 중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인도네시아지부

2025년 제7회 적도문학상 공모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한국문학 단체인 <<한국문협 인도네시아지부>>에서 우리 문학의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갈 우수한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5년 제7회 적도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인 작가의 등용문으로 자리 매김하고있는 본 문학상에 많은 응모 바랍니다.

응모 대상

미등단 신인으로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거주하는 성인 및 학생

부문

일반부: 시, 소설, 수필(전 부문 자유주제)

학생부: 운문, 산문

응모 방법

일반부: 시 3편 이상, 수필 2편, 단편소설 1편

학생부: 운문 2편 이상, 산문 1편 이상

분량

◆ 시는 자유분량, 수필은 A4 기준 2매(글자 11p)

◆ 소설은 1만자 내외

공모기간 및 접수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 munhyup2022@outlook.com

특 전

◆ 대상 수상자에게는 등단작가의 예우

◆ 당선작가 전원에게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가입자격 부여

시상 내역

수상자 발표 2025년 8월 하순경, 시상식은 별도 공고 (11월 경)

일반부

구 분	인 원	상 금
적도문학상 대상	1명	1천만 루피아
최우수상	3명	5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우수상	3명	3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장려상	3명	2백만 루피아 (부문별 1명)

학생부

구 분	인 원	상 금
최우수상	2명	상장과 부상
우수상	2명	상장과 부상
장려상	2명	상장과 부상

※응모작에 따라 부문별 수상자가 달라질 수 있음

※학생부는 중고등부와 초등부를 구분해서 운용함

주의사항

- ◆ 응모작은 반드시 미발표 창작물이어야 함
- ◆ 표절 및 저작권 시비가 있는 경우 당선취소 됨
- ◆ 응모작에는 별도의 용지에 주소 및 연락처 기재
- ◆ 당선작의 저작권은 작가와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공유

문의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62831 1513 8818, +62819 3117 3661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인도네시아지부



후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 한인 문예총 / 한인포스트 / PT. CIPTA ORION METAL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발리분관(당직폰)	0811 3831 3659
주아세안대 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 1900, 2992 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 30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292 130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954 03357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꿈나무학교	5579 440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SJ)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 (HIS)	0812 971 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 EMBASSY SCHOOL	390 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Sinarmas World Academy(SWA)	
SWA BSD	0812 8689 2897
SWA Thamrin	2993 7234

● 유치원

Hansol Kids	765 6588
Brain School	7179 4787
Bambino (Cipete)	2276 4497/7203 356
사랑	835 1540
하나	844 5283
꿈나무유치원	5576 7509

● 골프장

BOGOR RAYA	0251)827 1888
CENG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DAMAI INDAH [BSD]	537 0290
DAMAI INDAH [KAPUK]	588 2388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825 7400
IMPERIAL	546 0120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EDATON	590 9236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85 319
MODERN	552 9228
PADANG GOLF HALIM	800 5762
PALM HILL	8795 4888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2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1212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IVER SIDE	867 1528
ROYAL JAKARTA	8088 8999
SEDANA	0267)644 730
SEDAYU	5020 8088
SENTUL HIGHLAND	8796 0266
SUVARNA	0811 1586 873
TAKARA	549 6371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본점 5790 8888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가구

조지언 퍼니처 2276 6887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로만 인테리어 0811 847 699
그린 가구 0813 1000 8778

●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PT. SSA(종합건설) 0812 1956 0188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나무플라워 0812 1314 2681

● 기타

에셀바틱 0813 1038 4812
자카르타 명상센터 0821 7777 9972
땅그랑 명상센터 0821 7777 9973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트리비움발리마사지스파 0813 9861 1388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2 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1 193 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 미용실/피부관리

Jasmin Hair Salon 1 7280 0019
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7278 0255
Jasmin Hair Studio 3 7278 6530
레아뷰티샵 0858 5111 1222
스칼렛미용실, 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차르헤어 7279 6998
선스파 021-2793-3625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대박부동산 08111 555 615

● 병원

관존한의원 739 7854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미르한반병원 0856 9453 7974
Central Clinic 2709 9272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Indo Dental (치과 의사 정혜정) 0815 1004 2004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New Seoul Dental Clinic 0857 1917 9388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 본점 722 2214
무궁화 땅그랑점 558 2214
무궁화 찌까랑점 0851 0075 2214
무궁화 다라마왕사점 723 3214
무궁화 뽕독인다점 7590 5488
무궁화 골라빠가딩점 453 3624
무궁화 찌부부르점 2217 7281
무궁화 수라바야점 031-563 4645
무궁화 스마랑점 024-7640 4783
무궁화 반동점 022-8200 1674
무궁화 꼬따 바루점 022-8680 2262
무궁화 족자점 0274-288 5156
무궁화 발리점 0361-475 2734
무궁화 츠빠라점 0813 2158 5673
무궁화 뽕루잇점 0811 841 4188
무궁화 마카사르점 0811 46 0678
무궁화 빈따로점 0821 2292 9591
무궁화 바뽕점 0812 6664 8989
무궁화 BSD점 0811 1565 988
무궁화 빈판점 0812 6664 8989
무궁화 PIK점 0813 8839 6190
무궁화 반자르마신점 0811 5595 777
무궁화 가딩세르풍점 0813 1630 5312
무궁화 뽕렘방점 0813 9067 0995
무궁화 뽕띠아낙점 0812 5623 112
무궁화 꾸닝안점 0821 1448 0988
무궁화 꼬본주룩점 0813 8610 8800
무궁화 아마르따뽕라점 0815 9977 689
무궁화 롯데에비뉴: 0811 870 386
무궁화 뽕빠까마스점 0818 839 846
무궁화 뽕독뽕낭점 0811 8822 891
무궁화 솔로점 0858 0375 3035
무궁화 매단점 0813 7634 2842
무궁화 발릭바판 0821 4861 0000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무궁화 꼬망점 021 722 7214
무궁화 찌뽕뜨라점 0821 1448 0988
무궁화 라베뉴점 0852 8279 9647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K-마트 2277 5526
KOREA MART(수라바야) 031 734 3989
한나아시안 슈퍼마켓 085313645332

● 식당

가마골 021 7278 7789
가야성 725 7373
감미옥 5579 4612
강촌 5579 3681
강남 0812 2323 5119

woori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Website : www.woori-consulting.com



서로 도와 함께 가는 우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th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스타일	2952 8443
깜닭	4584 5837
꼬꼬따리아	0254 394 255
경복궁(찌부부르)	021 3885 3040
다운 코리안 그릴 & 다이닝	3825 0900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도마 식당	0858-5555-6510
대가	8459 2871
대가야	547 5511
대감집	723 3315
마포	7279 2479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루 짬뽕전문점	0851 8277 2578
미스터 박	5140 1142
방앗간(분식, 케이터링)	0813 8521 1474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본가	739 6229
본가 (족자카르타)	0274 2831440
삼원가든	2988 9505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상하이	5573 5550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산들	5579 5821
산정 까라와치	547 3172
산정 까복	3005 1650
산해진미	5577 8182
서울일식	546 0840
서라벌	3825 0401
설악추어탕1(세노파티점)	722 1852
설악추어탕2(끌라빠가딩점)	2937 5435
새마을 식당	0852 1506 1211
소래포구	8990 5051
수하루	5577 8585
숙달	0821-4007-7256
아리수	0254-781 0059
양대팔	0856 9226 9933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다움	021 5081 3656
웅대리 (SCBD)	021-5150 7734

	0812 5723 7627 (WA)
(Kelapa Gading MOI)	021-2245 0964
	0811 887 5705 (WA)
우리들	552 4047
유가네	2221 3392
연안수산	0811 8880 1374
우다움 세노파티	0811 1001 3571
예원	021-7212-0533
이차돌	0811 1838 310
정원 레스토랑	0852 1158 0507
주막	0821 7210 0452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지원갈비	021-7212-0436
쭈꾸미도사	085775245314
찬찬	0812-1060-4848
청기와	0858 1377 3388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치맥 (족자카르타)	0274 2831869
토박	725 113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옥(자카르타)	0812 1119 1991
한옥	0254-385 588
한마당	5577 6770
하나	0254-393 2146
하누	021 722 2365
한남동	0819 9994 0995
한상 (PIK)	0812 8881 1532
홍대포차	726 4999
홍콩반점	0812 8787 4928
글로벌 케이터링	8977 4174

•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0812 1004999
한인포스트	4586 9199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옵틱무티아라안경원	5793 7969
-----------	-----------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2950 8903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의료가

PT. CGM INDONESIA	0811 155 652
-------------------	--------------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AEGIS BLIND	2943 3876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0811 847 699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그린 인테리어	0813 1000 8778
INNOMATE	7919 2006
올댓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INPLAN DESIGN	0857 1198 6516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021 526 5512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34 1190



JASMIN HAIR SALON

Jasmin Hair Salon 1 (한국 미용실)
Darmawangsa Square 1F G46 Jakarta Selatan
영업시간 09:00~19:00 Tlp. 021 7280 0019/0811 956 2500

Jasmin Hair Studio 2 (현지 샬롱)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0225

Jasmin Hair Studio 3 (맞사지, 네일 전문점)
영업시간 09:00~20:00 Tlp. 021 7278 6530
Darmawangsa Square GF (Studio 2 G40, Studio 3 G54)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2 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5959
키움증권	5010 5800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오름컨설팅	4585 4910/11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두왕컨설팅	520 7153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OK컨설팅	0852 8185 5551

● 인재채용

OSSelnajaya(세르나자야)	572 7214
--------------------	----------

● 컴퓨터, IT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택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블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280513637
KAKAOTALK ID : theblueid	
동지 하숙	3608 9316
리썸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썬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 1780 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위자야 게스트하우스	0815 1024 8888
한발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	----------

오름 컨설팅
OROM CONSULTING
SINCE 1996



ITAS - ITAP - SILVER VISA
PENDIRIAN & DOKUMEN PERUSAHAAN
APOSTILLE - NATURALISASI
법인설립 (PMA & PMDN)

VISA INTERNATIONAL (Korea, China, Jepang, Singapore, Schengen, etc.)

Ruko Plaza Pasifik Blok.B-2 No.39
 Kelapa Gading - Jakarta Utara 14240

Winda (Team 1)
 (021) - 4585 6898
 (0811) - 882 1462

(한국인) Kakao ID : indocity1991
 visa.orom@gmail.com
 www.orom.co.id

Suhada (Team 2)
 (021) - 2245 5879
 (0812) - 9759 8638

소고기, 돼지고기와 함께
신선한 참치(볼때기살, 뱃살,
배꼽살)를 출시합니다!



김균

고기고기

밴드(김균 고기고기),
 카톡baguskim5050,
 087780948178로
 주문하세요

dailyindonesia.co.kr



데일리인도네시아

그대가 있어
 따뜻하다...



● **종교 단체**

<기독교>

가나안 교회(이병우)	021-8911-7591
	0821-1837-9995
꿈이 있는교회(김현준)	0821 2507 9069
땅그랑 교민교회(김재봉)	0815-1980-5788
사랑의 교회(이명호)	0815-7453-7254
자카르타소망교회(김종성)	021-739-6487
	0813-1104-3000
의의 나무교회(이의덕)	0813-8181-5570
예사랑 교회(박병삼)	0815-1041-9991
인도네시아 열린 교회	
(김용구)	0878-0844-5537
자카르타 늘푸른 교회	
(정형진)	0811-813-7529
자카르타 동부 교회	
(김정우)	0815-1016-5670
자카르타 믿음 교회	
(조광웅)	0811-194-8291
자카르타 주님의 교회	
(김완일)	0811-192-7255
자카르타 중앙 교회	
(여성호)	0813-8103-9768
자카르타 한마음교회	
(고형돈)	0812-8983-1433
자카르타 한인 안디옥교회	
(김종근)	021-750-9548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정효진)	0822-9898-0191
찌프라라야 은혜교회	
(고재천)	0811-841-312
짚레곤 늘푸른 교회	
(고재일)	0822-1361-2537
참빛교회(박윤길)	0813-1488-1753
한인열방교회(송광욱)	0811-951-762

반 동

반동 반석 교회	
(박성규)	0813-2039-8285
반동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0813-2233-0119
반동 한국인 교회	
(이제우)	0811-2233-1515
반동 한빛 교회	
(김정래)	0821-1920-3495
스마랑/족자	
스마랑 한인교회	
(윤성득)	0812-134-1932
족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서인석)	0856-4366-6891
족자카르타 우리 교회	
(김성태)	0812-2450-2126
한뜻교회(살라티가) 이기호	
	0298) 311 905
	0812-1538-8515

수라바야

수라바야 한인교회	
(박유신)	0811-3020691
수라바야 선교교회	
(박명수)	0812-3537-3054

메 단&발리

메 단 한인 교회	
(조원동)	0813-6120-1305
발리 한인 교회	
(유호종)	0812-3676-8029
발리 세움 교회	
(정문교)	0821-4764-8665

칼리만탄

발릭파판 한인교회	
(이성현)	62-8115400-863

(터미날3)	8082 219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031 1030
(공항지점)	8082 2291~2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아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5 1158
환전	712 8556

<천주교>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포교원)	765 6036 0818 333 491
법연종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닥터	0821-2222-6000

*발리지역의 문익는 당분간 발리한인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1 176 184
광주 진흥고(박호섭)	0812 6666 3338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 최상품 게르마늄 건강팔찌 및 목걸이 판매

갤러리(위자아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62-21-7278-8327 HP. +62-888-110-2022

수출·무역
 HP. +62-816-873-176, +62-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509-7751, +82-10-9824-8857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김우기) 0812 8763 9907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고(성기윤)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건우) 0815 1902 4123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부
 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이상열) 0811 916 953
 서울 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서울 영동고(최성욱) 0811 1920 121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 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웅)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김일태) 0812 1922 1462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912 302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 대학교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박호섭) 0812 6666 3338
 경북대(이준혁) 0811 880 401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추교일) 0813 1824 5952
 고려대(안재완) 0812 819 82252
 공군 장교단(정태훈) 0811 9891 403
 부경대(서동운) 0813 8568 1122
 동국대(염정운) 0817 681 8599
 동아대(이종현) 0811 151 7181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1 975 205
 부산대(류재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서울시립대(이승수) 0811 869 302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최일형) 0813 1129 8822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최재광) 0811 968 478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신송호) 0813 8981 5656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육군학사장교(김상진) 0812 8779 9035

재인도네시아 지역한인회

번호	지역한인회	직 위	성 명	휴대폰
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0812-1960-308]	회장	김 종 현	0811-837-386
		사무국장	최 인 실	0812-9881-6816
2	땅그랑반튼한인회	회장	박 성 대	0811-126-323
		사무국장	김 예 형	0821-8166-6137
3	찌까랑 한인회	회장	안 윤 근	0812-8164-8333
		사무총장	송 영 한	0812-902-6148
4	보고르한인회	회장	(공 석)	
		총무	임 성 필	0819-707-107
5	수까부미한인회	회장	김 흥 기	0811-980-337
		부회장	최 종 섭	0811-114-2163
6	반둥한인회 [022) 200-2154]	회장	이 동 진	0811-218-604
		사무차장	이 덕 환	0812-2017-838
7	중부자바(스마랑) 한인회 [024) 7648-2020]	회장	채 환	0822-2021-5725
		사무국장	유 성	0811-2777-490
8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8690]	회장	김 태 현	0818-321-332
		사무국장	최 효 순	0812-303-5940
9	족자카르타한인회 [0274) 497-761]	회장	박 현 두	0821-3595-5522
		총무	조 경 민	0821-3342-8818
10	즈빠라한인회	회장	박 형 기	0857-4706-9713
11	발리한인회 [0822 1996 3355]	회장	김 동 수	0811-394-551
		수석총무	김 성 희	0811-398-976
12	롬복 한인회	회장	박 태 순	0812-378-9841
		총무	이 용 구	0812-3810-4649
13	케프리주 바탐 한인회	회장	서 명 택	0821-7300-0120
		총무	윤 진 만	0857-7825-6241
14	메단한인회	회장	안 의 현	0811-6103-332
		총무	박 성 준	0813-7512-6888
15	마카사르술라웨시 한인회	회장(권한대행)	한 정 곤	0811-419-200
16	칼리만탄 한인회	회장	나 성 문	0811-506-4579
		사무국장	권 태 윤	0812-9881-6841

개인회비는 매년 Rp. 5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인도네시아 한인 행려병자의 병원치료비와
불법체류자의 한국 귀국에 필요한 항공편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를 후원하는 등 여
러분의 개인회비는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살아
가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한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김종헌 배상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200-913-783689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YAYASAN WARGA KOREA	YAYASAN WARGA KOREA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0812-1960-308